



[기업달래기 릴레이] 현대차그룹 간담회  
“혁신성장” 당부  
鄭 “23조 투자” 화답  
03



Economy

코스피	2515.43 (-6.31)	코스닥	886.58 (-14.65)
금리 (국고채 3년)	2.23 (변동없음)	환율 (원-달러)	1069.30 (+6.60) (17일)

# 반토막 난 ‘21세기 툴립’… 대폭락의 전조 VS 곧 재반등

대내외 규제에 악재 작용  
대표적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 1151만원까지 폭락  
알트코인도 일제히 떨어져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연합뉴스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비상 등이 커졌다.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지만 과거 조정기에 하락폭이 75%까지 확대됐음을 감안하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21세기 ‘화폐’ 인지, ‘툴립’ 인지.

17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29분 1151만원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1일 1127만

5000원에 거래된 이후 한 달 반 만에 최저치다. 지난 6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2661만6000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리플’이나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해외 송금에서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4500원 선까지 올랐던 리플은 이날 7시 30분 1200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달 들어 200만원을 돌파했던 이더리움 역시 109만원까지 떨어

지기도 했다. 악재는 안팎에서 모두 불거졌다.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규제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정부 부처별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목소리들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경고발언도 여전히 이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범정부 부처가 나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한 의무 준수 여부와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를

를 조사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개인간(P2P) 장외거래까지 차단하겠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하락세가 이어질 지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지난 2014년 4월 365.2달러였던 비트코인은 석달간 80% 가량 오르며 667.6달러를 기록했지만 그 뒤로 장장 8개월 동안 폭락을 거듭하며 178.1달러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13~2014년 대조정기에서부터 지금의 상승장까지 적게는 -30% 많게는 -75% 가량의 깊은 하락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만일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화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조정없는 상승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다시 2014년과 같은 하락장이 온다면 그 파급효과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다. 2014년만 해도 국내에서 참여자가 많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거래 규모가 가장 많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한 곳만도 회원이 120만명이며, 하루 최대 거래액이 10조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송 연구원은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0’ 또는 ‘1’이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0’이 되어도 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성장개연성이 있는 가상화폐라 하더라도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개연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우리은행 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前행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판사)는 17일 일부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전 은행장과 전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9일 열린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2016년 채용뿐 아니라 2015~2017년 입사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 전 행장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병중 기자 joker@



## 충북 진천 선수촌 찾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23일 앞둔 17일 충북 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훈련을 참관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과 선수촌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이재근 진천 선수촌장으로부터 선수촌 현황과 올림픽 목표 성적을 보고받았다. 이후엔 우리나라의 ‘메달밭’으로 평가받는 쇼트트랙 종목 선수단의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김진태 쇼트트랙 대표팀 총감독을 비롯해 선수들과 올림픽 준비 상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스하키 훈련장에서 남아 아이스하키 대표팀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에 손보사, 보험료 인하 고심

8개사 평균 4.7%p 개선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하 압박과 맞물려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손보사 8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2.6%로 전년 말 87.3% 대비 4.7%포인트 개선됐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업계

에선 적정 손해율을 77~78%로 본다.

메리츠화재가 78.2%로 가장 낮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해상 79.6%, 삼성화재 80.3%, DB손보 80.6%, KB손보 80.7%, 약사손보 85.3%, 롯데손보 86.9%, MG손보 89.0%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8개사 모두 손해율이 개선됐다. 특히 롯데손보는 같은 기간 100.8%에서 86.9%로 무려 1년 새 손해율이 13.9%포인트 개선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24일 무려 5년 만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인하했다.

(2면에 계속) /이봉준 기자 bj35sea@

## ‘반도체 초호황’ SK하이닉스, 13조 시대 연다

(연간 영업이익)

지난해 4분기 4.3조 추정 사상최대 분기 실적 전망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퍼호황 바람을 타고 지난해 4·4분기에 4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분기에 도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은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조원을 넘긴 상장사로는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에 이어 세 번째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하이

닉스의 지난해 4분기 컨센서스(추정치)는 매출액 8조9334억원, 영업이익 4조3548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 원화 강세로 이익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에 원·달러 평균환율은 26원 하락했다.

지난해 1~3분기까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9조2555억원이다. 4분기 실적이 전망치대로 나올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은 13조6103억원이 된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기별 영업이익 4조원 이

상도 지난해 4분기가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초호황기 덕을 톡톡히 봤다. 스마트폰 고사양화에 따른 D램, 플래시메모리 수요에 구글, 아마존, IBM 등 IT(정보기술)기업의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업체의 메모리 수요 증가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해 D램 평균가격(4Gb DDR4 PC용 범용 제품 기준)은 1.94달러(USD)에서 3.59달러(USD)로 85.1% 급등했다.

또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서버용 D램 중 16GB DDR4 제품의

평균가격은 2016년 말 95달러에서 지난해 말 145달러까지 약 52.6% 올랐다.

박우익 키움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원·달러 환율 하락을 고려해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여전히 양호한 메모리반도체 업황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원화 강세 지속으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D램 및 낸드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환율 영향을 상쇄했다”며 “4분기 D램 가격은 7%, 낸드 가격은 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 서울교통공사

## 베트남 도시철도 건설 참여

다낭시 교통국과 시스템 개발 등 상호 협력

베트남 다낭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에 국내 기술이 도입된다.

서울교통공사가 베트남 다낭시 교통국과 '도시철도 건설과 교통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낭시의 첫 도시철도 건설, 교통시스템 개발, 도시철도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계획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협약식은 16일 오후 3시(베트남 현지 시간) 베트남 다낭시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과 다낭시 인민위원회 응웬 응옥 푸언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다낭시 교통국, 기획투자국, 건설국 관계자 간 도시철도 건설 실무 협의회도 진행했다. 공사는 도시철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 기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다낭시 대중교통 기본 계획 검토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병중 기자 joker@

&gt;&gt; 1면 '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에...'서 계속

## 새 특약 도입에 추가 개선 기대

이 외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사 역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세를 이유로 작년 하반기 자동차보험료를 잇따라 인하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지난해 8월 21일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1.6%, 1.5%씩 내렸다. DB손보 역시 같은달 16일 개인용 0.8%, 업무용 1.3% 등 자가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0%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이보다 앞서 같은해 3월과 6월 각각 0.8%·0.7%, 8월 0.8% 등 총 세 차례 인하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외제차량 렌트비 현실화, 경미 손상 수리비 지급기준 신설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제히 개선됐다"며 "이달 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향후 손해율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여름과 겨울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업계 실적이 기대만큼 좋은 편은 아니다"며 "다만 지난해 손해율 개선세로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에 따른 손보사들의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한줄 News

## 정책·사회

▲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그룹 총수로는 첫 검찰 소환이다.

▲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 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정부가 농식품분야 보안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산업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8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 각각 QLED TV와 올레드(OLED) TV를 설치한다.

▲ 기존 미니밴의 단점을 보완하고 탑승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혼다**가 올 뉴 오딧세이를 직접 체험했다.

## 금융·부동산

▲ 정부가 올해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돕는다.

▲ 올해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지원주택은 과거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

## 유통

▲ **유통업계가** 쇼핑물 욕상에 체육시설, 체험형 매장, 키즈카페 등을 내세우며 집객효과를 끌어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 CJ 오쇼핑·CJ E&amp;M 전격 합병

## 융복합 미디어-커머스시장 선제 공략

1:0.41 비율로 합병 결의  
합병사 올 매출 4.4兆 목표  
인프라 공유로 경쟁력 강화

CJ오쇼핑과 CJ E&M이 합병한다.

CJ오쇼핑과 CJ E&M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1:0.41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다. 양사는 오는 6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글로벌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와 커머스가 융복합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미디어와 커머스의 결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CJ오쇼핑과 CJ

E&M의 사업역량을 집약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융복합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글로벌 인프라를 상호 공유하면 글로벌사업은 즉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CJ오쇼핑은 현재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현지 주요 미디어 기업과 합작 관계를 맺고 있고 CJ E&M은 베트남, 태국, 터키 등에 사업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상대회사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콘텐츠 IP를 활용한 커머스를 선보이거나 콘텐츠 합작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CJ오쇼핑의 상품 기획 역량과 CJ E&M의 콘텐츠 역량이 더해지면 기존 사업도 경쟁력이 강화된다.

CJ오쇼핑은 지난해부터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한 소비층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들과 손잡고 웹드라마와 예능 형식의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정체에 빠진 흡소핑사업의 돌파구를 TV 밖 차별화된 콘텐츠에서 찾으려는 시도다. CJ E&M 역시 콘텐츠 저작권(IP)을 활용한 수익 모델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기존 사업 시너지뿐 아니라 융복합 신사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CJ E&M이 보유한 TV, Mobile, SNS 등의 이용자행태분석데이터와 CJ오쇼핑이 보유한 Commerce Big Data, Trend Data를 결합해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와 브랜드 상품을 VR, AR, Voice UX를 통

해 큐레이션함으로써 새로운 고객 경험과 접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CJ오쇼핑과 CJ E&M 양사는 합병회사의 올 매출 목표 4조4000억원, 영업이익 3500억원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신규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2021년까지 전체 매출을 연평균 15.1% 성장시킬 계획이다.

CJ E&M 관계자는 "이번 합병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며 "라이프스타일과 콘텐츠, 디지털플랫폼을 결합해 최고의 경험과 즐거움을 주는 글로벌 융복합 미디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상생은 가맹본부의 ‘시혜’ 아닌 ‘생존’ 문제”

## 김상조 공정위원장

파리바게트 등 가맹점 6곳 방문  
최저임금 상승 따른 애로 청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단 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아름동 상가지역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등 6개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팸플릿을 직접 배포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



17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아름동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방문,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되고,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협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

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품목에서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금년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에 대해서도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가맹점과의 상생에 앞으로 보다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연초에 개정해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자들에게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거래법 이행평가 방향 등에 대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중소 사업자 진입 막은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ISO의 외곽된 정보 공유 등  
2014년부터 독점 위해 위반

CT, MRI 장비 업계에서 4년째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지멘스가 국내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고 시장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스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신규 진입한 중소기업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멘스는 CT, MRI 유지보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

준 지멘스는 자사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장비를 판매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가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0% 미만이다.

보건복지부가 CT·MRI 수가를 낮추면서 예산이 줄어 더 싼 값에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는 병원이 늘어나자 지멘스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위법행위를 시작했다.

지멘스는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차별을 두면서 자사와 거래를 하도록 했다.

CT와 MRI의 안전관리나 유지보수에는 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일종의 아이디어인 서비스가 필수적이

다. 자사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고급 권한이 포함된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 즉시 제공했다. 그러나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권한이 낮은 서비스키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 이마저도 판매 즉시 제공하지도 않고 최대 25일 동안 시간을 끌기도 했다. 한편 지멘스는 미국에서는 서비스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지멘스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병원에 공문을 통해 ISO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제보다 과장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거래하지 않고 ISO서비스 이용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ISO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자사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외곽된 정보를 공유했다.

이 사건 행위로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또 ISO의 가격경쟁력이 없어지고, ISO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로 외곽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으며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라고 지멘스에 명령했다.

공정위는 병원이 필수적인 서비스키를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이번 조치 내용을 지멘스 CT·MRI 장비를 보유한 병원에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가 독점하던 유지보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와 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게 차세대수소전기차 넥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현대차그룹



김동연 부총리가 차세대수소전기차 넥쏘의 무인 주차 기능을 시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김동연 부총리가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현대자동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를 방문 해 정의선 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웨어러블 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金 “혁신성장” 당부에 鄭 “23조 투자, 4.5만명 채용” 화답

(김동연 부총리)

(정의선 부회장)

## 김동연 부총리-현대차그룹 간담회

신산업 개발 등 선순환 비전 제시  
친환경차 부품개발 등 현황 살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혁신성장·신사업 일자리 확충 등 미래차 발전을 위한 일자리 확충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부회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를 방문한 김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사 창출과 일자리 확대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5대 신산업에 주력한다는 사업 계획을 공식화했다. 향후 5년간 5대 신산업 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하고, 4만5000여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주 CES 2018(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시회)에 가 보

## <현대차그룹 5대 신사업>

분야	집중 육성방향
차량전동화	'25년까지 38종 친환경차 생산(전기차 14종, 수소차 2종 등)
스마트카	'21년 자율주행 시범운영, '30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자율주행·스마트카 핵심기술 고도화 및 투자 확대
로봇·인공지능	웨어러블 로봇 세계적 기술역량 확보, '18년 조기 상용화 국내외 SI기술 보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미래에너지	차세대 배터리 및 수소에너지 연구 확대
스타트업 육성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인공지능(AI)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 등 500억원 규모 AI Alliance Fund운영

니 자동차 산업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며 “5대 신사업 분야에 대해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해 활성화 시키고 공장도 자동화를 통해 일자리가 줄어들거라 생각하지만 그에 따른 신기술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소차·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미래 먹거리 발전을 위해 새로운 협력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자리 증가 등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를 찾은 김 부총리는 정 부회장과 함께 친환경차 부품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3월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신형 수소차 ‘넥쏘’를 타보는 등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등을 직접 체험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는 3만달러 시대를 맞는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선 정부와 함께 경제 주체인 기업의 혁신성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현대차의 신기술 개발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면서, 동반성장 강화가 혁신성장의 중요한 요소인만큼 현대차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가 재계 총수와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LG그룹을 방문해 구본준 부회장을 만나 역시 혁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실리콘밸리 등 전세계 5곳의 오픈 이노베이션 혁신센터 설립하고 있다”며 “혁신센터에서 좋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국내 기업들과 연결시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현대차그룹은 올 초 한국과 미국, 중국, 독일, 이스라엘 5개국에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개방형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기로 했다. 또 로봇, 스마트카, 차량 전동화, 미래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을 5대 신사업분야로 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를 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설정함에 따라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과 정부는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자율차 분야 신사업 창출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미래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38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모터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초연결·초고령·기술융합·공유사회 등 미래 산업트렌드 변화에 따른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정 부회장은 “로봇과 AI 등 5대 신산업 분야에서 최고수준 인재들을 총원해서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라며 “신규 협력사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인력도 많이 뽑아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현대차의 신형 수소차 ‘넥쏘’는 차세대 동력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ADAS(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기술 등이 적용됐고 5분 이내의 충전으로 590km 이상(인증 전)의 항속거리를 구현했다.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주차와 출차를 돕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RSPA)이 탑재됐다. 넥쏘는 오는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급성 인플루엔자 A형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인플루엔자 A형 감염 환자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 자격 요건

-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 ▶ 시험 약 투여 전 48시간 이내 질환 발병한 대상자(체온이  $\geq 38.0^{\circ}\text{C}$  또는 호흡기 및 전신 증상 발병 대상자)
- ▶ 참여불가:
  - 인플루엔자로 항바이러스 치료 또는 연구 참여 전 14일 이내 항바이러스제 투약력이 있는 자
  - 연구 참여 전 21일 이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자
  - 현재 B,C형 감염 또는 HIV 감염 대상자

### 연구 절차

- ▶ 선별검사 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 본 연구에 등록 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치료제 1회 투여 및 채혈 등의 기본 검사 진행.
- ▶ 약 110일의 기간 동안 7-10회의 방문 (상황에 따라 3일간 입원도 가능함)

### 참여 혜택

- ▶ 임상시험 기간 동안 전문 교수진의 집중적 진료 및 관리
- ▶ 임상시험의 모든 검사비용(혈액검사, 뇨검사 등)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
- ▶ 입원비 및 소정의 교통비 등

### 실시 기관

-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 병원, 고대안암병원,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평촌한림대 성심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 21개 기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홈페이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1800-6883

※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위험(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JY 외 후계자 누가 있나” ‘승계’는 특검이 만든 허구

## 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 ④ 승계의 실제, 과연 있었나?

승계 작업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 변호인단 “지분 확보, 의미 없는 행위”

2014년 5월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그룹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얼굴을 비추는 일이 늘어났다. 삼성그룹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세간에서 이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를 준비하던 청와대 비서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 앞서 읽어볼 기업 관련 자료인 ‘대통령 말씀 참고자료’를 만들어야 했다. 비서관들은 삼성에게 기업의 현안 등을 요청하는 대신 인터넷 검색을 택했고 경영권 승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결국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후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2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2015년 말씀 자료에 ‘삼성



2011년 4월 삼성 서초사옥에 출근하고 있는 이견희 삼성 회장(왼쪽)과 이재용 당시 삼성 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되어 삼성그룹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램’이란 구절이 있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이란 구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는 자신이 아닌 운도 행정관이 작성한 문장이며 “운 행정관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썼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핵심 현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박영수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삼성으로서는 이견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

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되었다”고 말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더해 박영수 특검은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이라며 “두 가지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지상과제였고 재판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피고인들이 인정했음에도 재판

은 쉽게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

재판이 특검의 의도대로 흐르지 않은 이유로 삼성 관계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견희 회장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회사 지분을 최대한 늘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검의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승계 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회장 역할을 물려받는 의미의 승계는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 선택됐을 때 완료됐으며, 이 회장 사후 지분을 상속받는 절차만이 남아있었다는 의미다. 더불어 삼성전자 지분의 51% 이상이 외국인 주주들의 소유인만큼 이 부회장 개인의 지분 확보는 이미 의미가 없는 행위이기도 하다.

승계 작업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 중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고리 해소 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과정’이라는 것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삼성물산 합병은 삼성전자 지분 확보를 위한 작업이고 의결권 손실 최소화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

19조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은 지분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분을 줄인다는 모순을 내포했기에 실존할 수도 없는 셈이다.

또한 박영수 특검은 1심 논고문에서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검 스스로 개별적, 세부적 사안에서는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검의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내 실력으로 내가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임직원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대주주로서 지분을 얼마 가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의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고 이는 전적으로 제 자신에게 달려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와병 후 삼성그룹 안살림을 맡아온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회장 취임을 수차례 권유했다”며 “본인이 때(임원과 주주들에게 삼성의 리더로 충분히 인정받은 상황)가 아니라며 고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회장 취임 같은 문제는 이미 이 부회장 자신의 결심에 달린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 ‘100억 비자금 의혹’ 조현준, 검찰 출석

文정부 출범 이후 그룹총수 첫 소환



자신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사 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 300억원 규모의 ‘아트랜드’를 통해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 부실의 연대보증을 효성에 떠넘긴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을 보내게 하는 등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 배우 등 4명을 ‘탁탁 사원’ 형식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도 규명할 방침이다.

효성의 비자금·경영비리 의혹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7월부터 친형인 조 회장을 수백억원대 횡령·배임으로 고소·고발한 데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범종 기자 joker@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49·사진)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그룹 총수로는 첫 검찰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17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조사에 앞서 비자금 조성 및 부실 계열사를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집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 흥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원 ‘주 5일제’ 개편

월~금요일·화~토요일 2개 체계로

집배원의 근무체계가 월~금요일과 화~토요일 2개 체계로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일·생활 균형정책에 힘입어 집배원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한 월~금요일과 화~토요일 2개 근무조로 편성하기로 17일 밝혔다.

이번 복무체계 개편 시범운영은 우정사업본부와 대표교섭노조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이날 광화문 우체국에서 적극 합의해 결정됐다.

시범운영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24개(대도시, 중소도

시, 농·어촌도시를 포함)의 우체국에서 운영된다. 현재 집배원의 근무체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획일적으로 근무하고 토요일은 순환제로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 우편물 배달서비스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시범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완하고,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주 본부장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주 5일 근무체계가 정착되면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노동조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희 인턴기자 ryusou91@

## 작년 육아·가사 전담 남성 17만명... ‘역대 최고’

2003년 이후 최대... 증가 가속화 여성의 수 감소 양상 이유 ‘고령화’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7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를 하는 남성은 모두 17만 명으로 기준을 새로 정립한 200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업 육아·가사 남성은 지난 2003년 10만6000명을 시작으로 2010년 16만1000명까지 증가했다가 2011~2012년에는 각각 14만7000명, 14만4000명으로 줄더니 2014년에는 13만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15만명으로 증가로 전환한 후 2016년 16만1000명, 지난해 17만 명까지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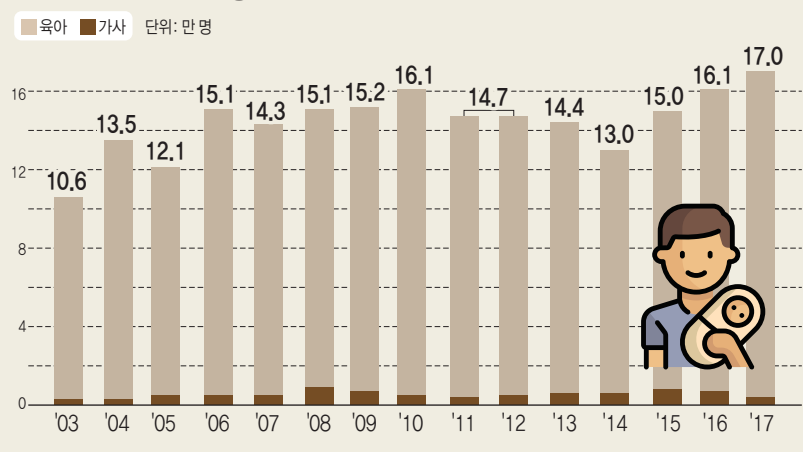
이같은 추세에 두드러진 특징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활동 없이 가사만을 전담하는 남성은 2015년 14만2000명, 2016년 15만4000명, 지난해 16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거나 육아 휴직을 한다고 해서 가사나 육아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며 “바깥에서 일하지 않고 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이들에 한해서 관련 통계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성들의 가사·육아 활동

전업 육아·가사 남성 추이



자료/통계청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아빠 육아 모임 ‘100인의 아빠단’ 7기 발대식에서 참가한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증가하자 자연스럽게 육아·가사만을 하는 여성의 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를 하는 여성은 694만5000명으로 2015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육아·가사 여성의 수가 600만 명대로 되돌아간 것은 2009년 699만

9000명 이후 8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육아와 가사에 전담하는 남성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수는 감소하는 이유로 일단 고령화를 지목한다.

은퇴 후 일을 하지 않고 집 안에 있는 남성이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로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30대 여성 고용률은 59.2%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래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만혼·비혼 추세가 이어지면서 육아·가사로 빠지는 여성 30대가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출하는 동시에 은퇴세대 여성의 취업도 늘고 있다”며 “성 역할 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최저임금·근로단축·정규직화 '465兆'짜리 정책

## 獨 컨설팅사 롤랜드버거 분석

용역보고서 정부협상 적극 활용

인건비·매출감소 464.7조 예상

근무시간 단축 '속도조절' 주문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를 경우 2020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75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도 포함시키는 등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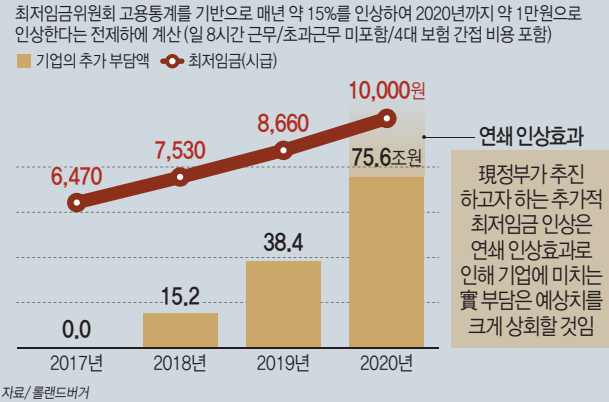
독일계 컨설팅기업인 롤랜드버거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가 17일 마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안을 내놨다.

롤랜드버거는 중소기업중앙회 의뢰로 '선진국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의 용역을 지난해 진행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새 정부 들어 노동 관련 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글로벌 컨설팅사의 용역보고서를 향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롤랜드버거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

### 향후 예상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추가 부담액



직화, 해고 유연성, 임금체계 유연성, 노동체계 유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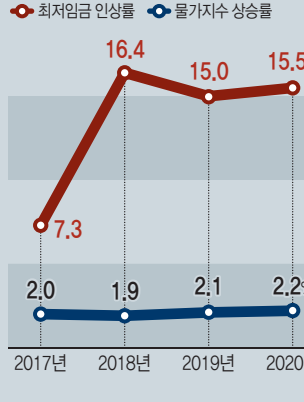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산입범위 및 산정기준 합당성이 부족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 기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근로자 중심의 정책으로 균형감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롤랜드버거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와 매출감소 예상액이 총 464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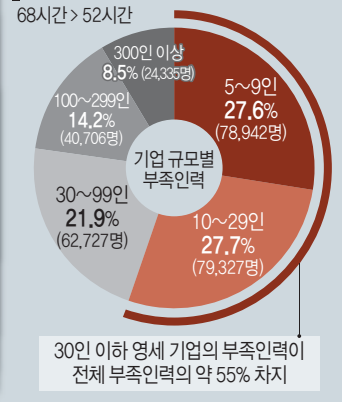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란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양극화라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정책의 '시스템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롤랜드버거는 지난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올랐고, 또

### 최저임금·물가지수 상승률



### 최대근로시간 단축시 부족인력



매년 15%씩 상승해 2020년 1만원에 도달할 경우 기업들이 물어야 할 추가부담액도 올해 15조2000억원, 2019년 38조4000억원(최저임금 8660원), 2020년 75조6000억원(〃 1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루 8시간 근무(초과근무 미포함)하고 4대 보험 간접 비용까지 포함해 분석한 결과다.

특히 롤랜드버거는 지난해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의 중간값 대비 6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빈곤선(중위임금 대비 50%)을 크게 상회하는 등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정기준을 더욱 명확화해 사용자, 근로자, 공익 등의 입장이 공평하게 반영되고 시장 변화까지 적극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했다.

근로시간(주당)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빠르게 줄일 경우 영세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세금감면, 유연근로활성화, 임금동결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은 선례가 있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단축속도를 연평균 1시간 이하로 조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올해는 혁신성과와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뤄내야 할 도전의 해"라면서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의 해법을 찾고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중기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정책제언서를 여·야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허수영 BU장, 부회장 승진

롯데케미칼 정기 임원인사 마무리

롯데그룹이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롯데는 지난 10~11일 진행된 39개사의 임원인사에 이어 17일 롯데케미칼이 이사회를 열고 임원인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실적과 성과 중심, 전문성 갖춘 미래 인재 발굴, 젊은 대표이사 전진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임원인사가 단행된 만큼 롯데케미칼 임원인사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두드러졌다.

허수영 화학BU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허수영 화학BU장은 1976년 호남석유화학으로 입사하여 롯데대산유화, 케이피케미칼,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거쳐 2017년 화학BU장으로 선임됐다. 최근 롯데의 화학사들이 최고의 경영성과를 달성하면서 허 BU장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롯데케미칼의 미국법인인 LC USA의 신입대표로는 황진구 프로젝트담당이 전무 승진과 함께 선임됐다. LC USA는 미국 화학사 엑시올과 합작하여 연산 100만 t 규모의 에탄 크래커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연산 70만 t 규모의 에틸렌글리콜 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1995년 입사한 황 신입대표 내정자는 연구, 생산, 신규프로젝트 등을 거쳐 2015년부터 미국 프로젝트를 담당해왔다.

롯데는 올해 50세인 황 내정자를 과감하게 전무로 발탁 승진시켜 신입대표로 내정하면서 CEO 세대교체를 통해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 부회장

미래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씨텍의 대표이사로는 롯데케미칼 전명진 생산본부장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외국인 임원도 2명 늘어났다. 롯데케미칼 파키스탄(LCPL) 휴메어 이자(Humair Ijaz) 법인장은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롯데케미칼 타이탄(LC Titan)의 필립 콩(Philip Kong) 기획·법무총괄은 성공적인 상장으로 신규투자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승진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외국인 임원은 총 8명이 됐다.

롯데 관계자는 "최근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화학부문이 이번 인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내 몸속의 혈액이 흐르는 수도관, 혈압의 건강한 관리!**

**비타민하우스의 코엔자임NatQ는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Q10**  
100 mg

**나토키나제**  
2,000 FU (부원료)

## 코엔자임NatQ 450 mg X 60 캡슐

하루 한캡슐로! 1.간편하게 100 mg의 코엔자임Q10 섭취! 2.나토키나제 2,000 FU (부원료) 섭취!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식품코너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1588-8529



# ‘돈세탁·비과세’ 구멍 송송... 편법 상속·증여 창구로

## 규제 사각지대 놓인 가상화폐

과세부터 관련 범죄까지 수면위로  
개미들 ‘유료리딩방’ 등서 몰타기만  
美·日 가상화폐 제도권편입 가속화  
정부, 다음주 관련대책 발표 예정  
과세방안·투자한도 제한 등 예상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각종 코인에 몰리면서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 등이 미비해 사각지대가 만연하다. 법이 없는 곳엔 편법이 판치면서 과세부터 관련 범죄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께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전망이다.

### ◆(돈)있는 사람은 더 편한 가상화폐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세 무풍지대’로 불린다. 관련법이 없어 가상화폐가 자산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

정부는 내달 말까지 공직자 22만명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가족의 재산변동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자는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신고 재산 항목엔 소유자별 합계액 1000

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을 비롯해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노농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도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 및 증여에 세금을 물지 않는 것도 문제다.

특히 증여세는 현재 부부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등의 한도를 넘으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부모에게 5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려면 7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모가 5억원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자녀의 코인 지갑에 보내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의 테두리도 벗어나 있다.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4조10항이 정의하는 기초자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료리딩방’이 성행하는 이유다. 유료리딩방은 월 50만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고액 회비를 내고 가상화폐 투자 종목·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폐쇄 커뮤니티지만,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아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

### ◆법안 발의 잇따라...규제는 추가 또 추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각종 편법과 불공정 사례 등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3일 가상화폐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미성년자·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입·출금 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엔 가상화폐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과세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를 도입하면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이 투자자별로 실명확인을 거쳐야 계좌가 발급되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가능해진다. 은행들은 이달 말 실시되는 실명제 도입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가능한 정부 TF에서는 법인세와 양도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과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부과하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중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또 한 차례 내놓을 방침이다. 대책에는 가상화폐 투자 한도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관련 주요 일지〉

시기	내용
11.28	이낙연 국무총리 “가상화폐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병리현상 벌어질 것”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화폐 시장이 자금세탁 통로 되지 않게 할 것”
12.04	최종구 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
12.08	정부,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 및 사기 수단으로 판단 및 국내 거래소 거래 원칙 금지 방안 검토
12.13	정부,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 발표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신규투자 금지, 미성년자외국인 거래 불가 -입출금시 본인 확인, 가상화폐 거래 규제할 법적 근거 마련 예고 등
12.15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관련 7대 자율규제안 발표 -거래소실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예치금 70% 이상 외부장치에 보관 -본인확인 한 개의 계좌로만 입출금 가능 등
12.20	과기정통부, 빙썸코인원코빗업비트에 ‘SMS 인증 의무대상’ 통보 정부,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 추가 발표 -거래소 폐쇄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가상화폐 실명제 등
12.28	-가상계좌 신규 발급 즉시 전면 중단,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2018년 가상통화 관련범죄 집중단속 계획, 불법행위시 법정최고형 구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게시
18.01.11	박상기 법무부장관 “거래소 폐쇄법안 준비중”
1.15	최종구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욕 먹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금감원, 가상화폐 거래 관리감독위한 TF 구성
1.16	김동연 부총리 “과세 포함한 종합적인 가상화폐 규제 대책 내놓겠다” 청와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20만명 돌파
1.17	금감원 가상화폐 TF 첫 회의

## 화물 위치·상태 등 실시간 공유 해운·금융·SI 등 ‘미래 신기술’

### 신기루인가, 혁명인가 코인 이야기

#### 4 블록체인이 열어나가는 미래 세계경제포럼 “10년 내 GDP 10% 블록체인에 저장” IS업계 주도권 선점 경쟁 치열할 듯

한국 정부를 위시한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일사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투명성과 보안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과 물류 분야에서 도입이 확산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정보를 다수의 참여자가 나눠 보관하기에 해킹이나 위·변조 위험이 낮은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세계경제포럼은 10년 이내에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201억원 규모이던 국내 블록체인 시장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3562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급성장하는 블록체인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국내 SI업계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곳은 삼성SDS다. 삼성SDS는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전자인증 플랫폼 ‘레주메’ 개발에 나섰다. 기존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적인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아왔다.

삼성SDS는 사내벤처를 통해 레주메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보안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물론 사용자 편의에 개발



홍원표 삼성SDS 사장이 지난해 ‘머니 20/20 유럽’에서 블록체인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SDS

이 완료되면 기존 전자인증 방식을 빠르게 대체할 전망이다. 국가 단위 인증시장을 선점하고 동남아시아 전자인증·전자정부 사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삼성SDS의 목표다.

금융과 해운물류에도 삼성SDS의 블록체인이 적용되고 있다. 삼성SDS는 지난해 제휴사, 금융기관과 사이에 안전한 거래를 하도록 돕는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를 선보였다. 삼성카드에도 채택돼 전자문서 원본 확인, 생체인증, 제휴사 자동 로그인 등에 적용됐다. 지난해 말에는 해운물류 분야에 적용, 회사별로 문서 양식이 달라 공유되지 못했던 화물 운송 정보 추적과 수출입 관련 서류 위·변조 예방, 발급절차 간소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SK(株) C&C 역시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 해운물류 서비스를 개발했다. SK(株) C&C는 종이 장부를 통해 거래를 기록하는 물류 시장의 열악한 상황에 주목해 선주와 육상 운송업자, 화주 등 관계자 모두가 화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화물의 컨테이너별 위치는 물론, 온도, 습도 등의 정보가 실시간

으로 자동 수집되며 관계자 전원에게 공유된다.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은 모두 차단된다.

이전까지 선박을 통해 운송된 물류는 배에서 내린 뒤 트레일러 차량으로 옮겨질 때 내용물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기록해야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컨테이너별 화물 상태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에 중간에서 이를 점검하고 기록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LG CNS도 금융권 블록체인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세계 최대 금융특화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파트너십을 맺고 ‘LG CNS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국내외 22개 은행이 참여하는 R3의 ‘국제자금이체 파일럿 프로젝트(아인트)’에도 참여했다. 이 성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는 높아지고 있다”며 “각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략과도 맞물려 있기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 20만명 넘는 가상화폐 국민청원 靑 “기존 의제 포함 순서대로 답변”

거래소 폐쇄 놓고 혼선 빚어 공분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 조정”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훌쩍 넘어지면서 향후 정부가 어떤 추가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청원 내용이 30일간 20만명 이상 국민이 추천할 경우 정부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2월28일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국민청원은 이달 27일이 만기이지만 이날 현재 참여인원이 21만명을 넘어서면서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관련 내용을 청원한 아이디 ‘kako\*\*\*’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며 거래실명제, 세금 부과 등이 필요하지만 선진국에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발전해나가는 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만이 넘는 기존 의제 등을 포함해 순서대로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열풍을 놓고 ‘거래소 폐쇄’, ‘폐쇄 사실 무근’ 등 혼선을 빚으며 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 이름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입장문에서 정부는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상화폐를 놓고 부처간 불협화음 등을 우려해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나간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출입기자들간 신년감담회 자리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폐쇄’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언론이 앞뒤 잘라 전달하다보니 오해가 있었지만 어떤 사안에 대처할 때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정상”이라면서 “(가상화폐 관련)정부 입장은 앞서 발표한 것이 현재까지 최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민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뒤늦게 뛰어들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두나무 등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기업에 4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기부는 해명자료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정하는 것은 민간운용사인 창업투자회사로 412억원의 투자금액은 이들 16개 창투사가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총금액으로 출자지분을 고려할 때 모태펀드에선 실제론 36억4000만원만 투자했다”고 밝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kg의 장비를 메고  
불과의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에게  
우리의 기술이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영상전송으로 화재범위와  
경로를 추적하는 소방드론

SK텔레콤은 강원소방본부와 협약을 통해  
소방드론과 바디캠을 소방관들에게 제공하고  
5G 기술로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5G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하니까요

미래 생활의 중심 |  SK telecom



재난현장상황을 종합상황실에  
송출하는 바디캠

# SEE YOU TOMORROW!



# 900선 문턱 넘은 코스닥, 10兆 IPO 새내기 줄줄이 대기

정부가 내놓은 활성화 정책에 활기 현대오일뱅크 등 대어급 시장 주도 카카오게임즈 게임주도 관심 쏠려

코스닥지수가 지난 2002년 이후 16년 만에 900선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공모주 시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의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뱅크 등 '대어급'으로 꼽히는 기업들과 카카오게임즈 등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올해 연간 공모 규모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도 올해 IPO 공모 금액 규모가 총 8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대로라면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의 공모금액은 약 7조9000억원이었다. 이 중 코스닥에는 약 3조5258억원의 공모금액이 몰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상장 후보군)

기업명	공모 진행사항	비고
JTC	상장예비심사 진행 중	일본기업
SK루브리컨츠	상장 주관사 선정	공모금액 1조원 이상 추정
SNK코퍼레이션	상장 주관사 선정	일본기업
교보생명	상장 유력 후보	공모금액 1조원 이상 추정
남화산업	상장 주관사 선정	골프장 운영 전문기업 상장 1호 전망
바디프랜드	상장 유력 후보	안마의자 브랜드 1위
블루홀	상장 유력 후보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롯데정보통신	상장 주관사 선정	롯데지주 출범 이후 첫 상장
애경산업	상장예비심사 진행 중	2018년 코스피 1호 상장 예정
에이산	상장 주관사 선정	일본기업
이디야커피	상장 주관사 선정	커피 프랜차이즈 첫 상장
지누스	상장 주관사 선정	아마존 매트리스 매출 1위, K-OTC 시총 1조
카카오게임즈	상장 주관사 선정	2018년 코스닥 공모 1위 예상
케어랩스	상장예비심사 진행 중	O2O 기업 상장 1호 전망
티웨이항공	상장 주관사 선정	세 번째로 상장하는 LCC
현대오일뱅크	상장계획 발표	공모금액 2조원 이상 추정
호텔롯데	상장 주관사 선정	사실상 무기한 상장 연기 중

[자료=SK증권]

상장을 준비중인 현대오일뱅크는 시가총액이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주식의 20~30% 수준인 코스피 평균 공모 비율을 감안하면 공모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

SK그룹 계열의 SK루브리컨츠는 상

장 주관사를 선정한 상태다. 시가총액 5조원 이상, 공모금액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세계 3위의 윤활유 회사로 2015년에도 상장을 시도했지만 실적 하향 등의 여파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철회했다. SK그룹은 수

면장에 치료제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인 SK바이오팜의 상장도 예정돼 있어 올해 IPO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대기업으로 꼽힌다.

AK그룹의 '알짜회사'로 꼽히는 애경산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치약, 세제 등의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애경산업은 최근 화장품 호황과 중국 진출을 계기로 성장성이 부각된다.

안마의자 전문기업 바디프랜드도 상장 유력 후보로 꼽힌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바디프랜드는 IPO를 통한 엑시트(자금 회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실적이 급성장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해 시가총액이 2조~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호텔롯데의 상장도 관심사다.

코스닥시장에선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9월 한국투자증권을 주관 상장사로 선정하고 IPO를 준비 중이다.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업 가치가 1조~1조5000억원까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매출액 5000억원, 영업이익 400억원 이상의 실적을 낸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연구원은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연기금 투자 비중 확대를 비롯해 테슬라상장제도 요건 완화 등 정책 지원을 밝히고 있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시기보다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 경쟁도 치열하다. 교통 솔루션 기업 에스트래픽은 1128.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증거금도 2조4030억원이 몰렸다. 상신전자, 영화테크, 비디아이 등도 청약 경쟁률 1000대 1을 넘었다. 그러나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1월 상장한 공모주 50개를 분석한 결과 공모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한 16개 중 43.8%는 상장일 증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공모 규모 300억~500억원(8개)은 25%, 100억~300억원(23개)은 21.7%로 비율이 낮아졌다. 100억원 미만 공모주(3개)는 모두 상장일 증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될 경우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유전자변형물체' 차단 법안 만든다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번식 가능해 생태계 교란 위험성 높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물체(LMO)' 차단을 위한 법안 마련이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MO 수입 제한 조치는 물론, 미승인 LMO 수입을 시도하지만 해도 처벌받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뜻하는 것으로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위험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점 때문에 식품이나 사료 등 LMO를 이용한 가공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용어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과는 달리 쓰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산 유채 씨앗이 LMO(유전자변형물체)로 밝혀지고 일본에서 유입된 유전자 변형 면화까지 발견되면서 현행 수입종자 검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광역단위로 LMO 환경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충남·경남 12개 지역 중 8곳에서 평균 5000여 평에 이르는 유전자 변형 유채 집단 서식지가 발견돼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미승인 LMO 검출에 따른 수입 제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미승인 LMO검출때 수입자의 회수·폐기·반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LMO 폐기·반송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부정행위 도중 적발된 미수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이미 수입돼 유통중인 종자나 재배중인 작물에서 미승인 LMO가 검출될 경우, 수입자가 회수해 폐기·반송 등 조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중국산 LMO 유채가 수입되면서 국내 유채 오염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엄격한 LMO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종 기자 grandtrust@]



AK플라자 평택점 키즈카페 전경(왼쪽)과 아이파크몰 풋살경기장 전경.



[AK플라자·현대아이파크몰]

## 옥상 마케팅으로 '집객효과' 높인다

체험형 매장·키즈 카페 등 오프라인 점포 돌파구 마련

유통업계가 쇼핑물 옥상에 체육시설, 체험형 매장, 키즈카페 등을 내세우며 집객효과를 끌어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소비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번져가면서 오프라인 점포의 불황이 이어지자 집객을 높일 수 있는 돌파구로 '옥상 마케팅'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옥상 활용해 '키즈 고객' 모신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AK플라자가 평택점 옥상에 키즈카페 '닥터밸런스'를 오픈하고 동시에 키즈브랜드를 대거 늘렸다.

최근 3년간 평택시 인구가 매년 1만명 이상 늘어나면서 스포츠 키즈 브랜드 매출도 덩달아 증가, 0세~12세 키즈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브랜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앞서 AK플라자는 오픈 전인 지난 11월 중순부터 연간 회원권 사전 할인 판매를 실시, 누계 매출이 1억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키즈 고객 모시기'는 AK플라자의 특화된 '고객 맞춤형 매장' 구성의 일환이다. 최근 평택시의 상권 확

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30~40대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맞춤형 매장을 제공할겠다는 전략이다.

평택시는 오는 2020년 예상 총인구가 86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의 대부분은 사회적 생활활동이 활발한 30~40대다.

평택시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30~40대와 이들 자녀의 비율이 평택시 전체 인구의 56.4%를 차지한다.

AK플라자 평택점의 전체 매출 비중에서도 30~40대 매출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40대 고객의 자녀를 위한 소비로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스포츠 키즈 브랜드 매출은 평균 45%나 증가했다.

◆풋살 동호인 쇼핑물로 모인다

옥상 유휴 공간을 활용한 풋살장도 인기다. 대표적으로 용산 아이파크몰은 2012년 처음으로 쇼핑물 옥상에 풋살경기장을 조성했다.

아이파크몰은 지난달 옥상공간에 풋살경기장을 신축, 기존 2개의 야외 구장과 1개의 실내구장과 함께 총 8개의 풋살장을 갖췄다.

아이파크몰은 연 15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풋살장을 방문하고 경기 외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연 5만명 이상의 일반 고객이 풋살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적화된 현대아이파크몰 마케팅 팀장은 "전국에 20만명의 풋살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직장인을 중심으로 인기가 계속 치솟고 있다"며 "유소년 축구 교실과 회사 단합대회, 여성들의 건강 다이어트 운동 등 저변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풋살파크장이 대표적이다. 홈플러스는 총 11개의 점포에서 옥상에 풋살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마케팅기업 HM스포츠와 동대문점에 전환형 인조잔디가 깔린 국제규격(길이 42m·너비 22m)의 풋살파크를 오픈했다.

홈플러스와 HM스포츠는 이달 전주 완산점을 추가로 열고 연내 부산, 천안, 창원, 순천 등 각 권역 구장을 2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와 성인들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아마추어 풋살 리그도 준비 중이다.

권영휘 홈플러스몰리빙 팀장은 "대형 건물 옥상을 활용한 풋살장은 체육발전과 함께 삭막한 도시를 새롭게 재생한다는 의미도 있어 마이애미, 도쿄, 상하이 등 해외 대도시에서 각광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변신을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최종구 "소상공인·중소 고용유지 땐 대출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혜택을 주는 대출상품을 2월 초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김도진 기업은행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순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 등과 서울 중구 방산 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완화와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선결과제"라면서도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상품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라며 "지난 2일 출시한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 정책을 시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채원화 기자]





# 인천공항 제2터미널서 TV화질 격돌 LG전자

## 삼성전자

85인치 초대형 사이니지 44대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 설치

## LG전자

퍼스트클래스 라운지 스위트에 초프리미엄 시그니처 올레드 TV W

삼성전자가 LG전자가 18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QLED TV와 올레드(OLED) TV를 설치한다. 연간 약 2000만명이 이용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곳곳에서 각각 QLED TV와 올레드 TV의 강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대한항공 라운지 4곳에 올레드 TV 40대를 설치했다.

특히 퍼스트클래스 라운지 스위트에는 초프리미엄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를 설치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는 설치시 두께가 4mm가 채 안 돼, 마치 그림 한 장이 벽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회사 측은 "미니멀리즘 디



LG전자가 18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곳곳에 LG 올레드 TV 69대를 설치해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뛰어난 화질을 알린다. LG전자 모델들이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 라운지 스위트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를 감상하고 있다. /LG전자

자인이 구현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제2여객터미널 로비에도 올레드 TV 29대를 설치했다.

LG전자는 대한항공 라운지에 'CES 최고혁신상'을 받은 'LG 4K UHD 프로젝터'도 설치했다. 이 제품은 4K UHD

해상도에 2500안시 루멘 밝기를 갖췄고, 150형 대화면을 보여준다.

또 LG전자는 제2여객터미널 곳곳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알린다. 교통센터, 입출국 심사대, 체크인 구역, 면세구역 등에 55형 LCD 사이니지 336대, 86형 울트라 스트레치 49대

등 LCD 사이니지 총 385대를 설치했다.

특히 지하 1층 교통센터에서 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구 위쪽에 55형 LCD 사이니지 256대를 이어 붙여 설치한 비디오월은 길이 175m 웅장한 위용을 자랑한다. 이 비디오월은 국내에 설치된 광고판 중 가장 길다.

LG전자는 3층 체크인 구역에 가로 4.3m, 세로 5.7m LED 전광판을 설치해 역동적인 한국의 모습을 상영한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손대기 HE 마케팅 담당은 "고객들에게 올레드 TV의 차원이 다른 화질과 디자인을 알려 프리미엄 TV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제2여객터미널 로비에 55인치 QLED TV 29대를 설치했다. LG전자의 올레드TV 설치 대수와 같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85인치 사이니지 44대와 미디어월 218대를 포함해 다양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제품 1600여대를 새로 설치해 항공편 이용을 위해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이용객 등에게 다양한 화면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1여객터미널에 1900대의 사이니지를 놓은 데 이어 2여객터미널에도 1000대 이상을 새로 설치했다"면서 "사실상 터미널 모든 곳에서 삼성의 화질을 즐길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 오륜기 입은 '갤노트8 올림픽 에디션' 공개

### 삼성전자, IOC와 협력

선수·관계자에 4000여대 제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무선 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8 올림픽 에디션'을 17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4000여대의 갤럭시노트8 올림픽 에디션을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 전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추억을 순간순간 기록하고 전 세계인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모바일 기술은



삼성 갤럭시 노트8 올림픽 에디션. /삼성전자

전세계에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갤럭시노트8 올림픽

에디션을 통해 올림픽의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 전세계에 생생하게 전달될 것"이라며 갤럭시노트8 올림픽 에디션 발표를 환영했다.

갤럭시노트8 올림픽 에디션은 6.3형의 베젤을 최소화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한 단계 더 진화한 S펜, 최고 성능의 듀얼 카메라 등 갤럭시노트8의 최신 기능에 겨울을 상징하는 사이니 화이트 색상과 올림픽을 상징하는 금색의 오륜기 디자인을 입혀 특별함을 더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테마로 한 전용 월페이퍼와 올림픽 게임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오세성 기자 sesung@

## 평창올림픽 응원영상 조회 200만 돌파

### SK이노베이션, 공개 15일 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정유부문 공식 스폰서 SK이노베이션의 응원 영상이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달 29일 공개한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영상이 15일 만에 조회 수 200만 회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스피드 스케이팅, 봅슬레이, 스키, 아이스 하키, 스키 점프 등의 동계올림픽 종목에 국민들의 응원이 더해질 때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영상에 담았다.

이번 캠페인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영상 각 종목에 등장하는 선수들의 유니폼 넘버의 의미는?"과 같은 다양한 질문도 나오고 있다. 사실 육상 선수의 '12', 스케이트 선수의 '42'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다. 다만 마지막 부분 스키점프 선수의 '23'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스키 점프 선수의 유니폼에 숫자 23을 새겨 넣어 제23



SK이노베이션의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영상. /SK이노베이션

회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고자 했다"며 "스키 점프 선수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듯 한국 대표 선수단이 이번 대회에서 기량을 한껏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의 이번 응원 영상은 모션그래픽을 접목해 제작됐다. 모션그래픽은 비디오 영상, 애니메이션 기술 등을 이용해 사진 또는 그림들에 효과를 주어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역동적인 모션과 선명한 색채를 활용해 정보 전달력이 좋기로 유명하다.

/오세성 기자

### 현대중

## 인니서 500억 규모 발전설비 첫 수주

현대중공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500억원(4800만달러) 상당의 이중연료 발전설비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인도네시아 트루바자야 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전력공사가 발주한 총 86MW급 육상 엔진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 발전소에 4.1MW급 이중연료 힘센엔진 21대와 관련 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설치 및 시공은 현지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사인 트루바자야 엔지니어링사가 맡게 된다. 힘센엔진은 현대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중형엔진으로, 주로 선박의 추진이나 발전용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이중연료 힘센엔진은 디젤연료와 천연가스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엔진보다 유해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엔진으로, 최근 가스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전시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혼다 올 뉴 오딧세이 주행 모습.

## 광각 카메라로 뒷자리 모니터링 가족 위한 진정한 '패밀리카'



### 혼다 '오딧세이'

'인기 있는 차량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혼다의 대표 미니밴 오딧세이는 기존 미니밴의 단점을 보완하고 탑승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했다. 미니밴은 좁은 트렁크 공간과 실내공간, 3열 탑승 승객과 대화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번에 혼다가 선보인 '올 뉴 오딧세이'는 이같은 단점을 최소화하고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로 거듭났다. 덕분에 1994년 최초 출시 이래 북미 시장에서만 매년 1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3년에는 미국 시장 미니밴 1위를 차지했다. 또 미국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인 쉐리블루부의 '2018 최고의 잔존가치 어워드'를 수상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오딧세이는 지난해 11월 역대 수입 미니밴 사상 최대 월간 판매량인 245대를 기록했다.

올 뉴 오딧세이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시승을 했다. 올 뉴 오딧세이는 다양한 편의 사양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탑승자들의 편안함과 안전, 즐거움을 극대화했다. 우선 세계 최초로 '캐빈토크'와 '캐빈위치' 기술을 탑재했으며 2열 매

지 슬라이드 시트, 전자제어식 10단 자동변속기, 진공청소기, 혼다 센싱 등 전후무한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패밀리카 구매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캐빈 토크는 운전자가 이야기 하면 차량 내부 스피커를 통해 전달한다. 마치 항공기 기장이 기내 방송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캐빈 위치는 천장에 달린 광각 카메라를 통해 뒷자리 탑승자(2열, 3열 승객)의 모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다.

2열 좌석은 매직 슬라이드 시트가 적용돼 앞뒤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움직인다. 특히 2열 가운데 좌석은 탈착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실내 구성을 적용할 수 있다. 3열 탑승자의 편리한 승하차를 위해 2열 시트를 한쪽으로 몰아놓을 수 있다.

또 차량 내부와 매트 의 먼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가 차내에 배치되어 있다. 실제 청소기를 작동한 결과 흡입력은 일반 청소기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적재공간도 전 모델보다 늘어났다. 3열 뒤 적재 공간이 50mm 증가해 3열 시트를 폴딩하지 않아도 여행용 캐리어 4개 또는 쌍둥이 유모차 등 대형 화물의 적재가 가능하다.

올 뉴 오딧세이는 기존 실버, 블랙, 화이트, 메탈 색상에 레드와 그린을 추가되어 총 6가지 색상으로 국내에 출시됐다. 판매가격은 579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양성운 기자 ysw@



# 한화토탈에 세워진 '99m' 빅타워

2300톤급 대형 크레인도 투입  
완공 후 프로필렌 생산량 증가

한화토탈은 대산공장에서 초고층 아파트 높이와 맞먹는 빅타워를 무사히 세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세워진 빅타워의 높이는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33m)의 3배,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와 맞먹는 99m에 달한다. 한화토탈은 초대형 빅타워의 안전한 기립을 위해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 각 1대씩만 있는 2300톤급 대형 크레인도 투입했다.

세계에 2대 뿐인 크레인까지 동원한 빅타워는 한화토탈이 진행 중인 나프타 분해설비(NCC) 사이드 크래커 증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들어온 프로필렌 정제설비다. 지난해 4월 프로판(C3LPG)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설비인 NCC



대산공장 증설에 나선 한화토탈이 99m에 달하는 프로필렌 정제설비를 기립시켰다. /한화토탈

사이드 크래커 증설에 착수한 바 있다. 프로필렌 정제설비의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지반조사와 보강이 이뤄졌고, 크레인 반경의 기존 시설물 간섭 여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테스트, 외부 전문가의 안전점검 등도 차

로 실시됐다. 한화토탈의 NCC 사이드 크래커 증설은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 후 한화토탈의 연간 에틸렌, 프로필렌 생산량은 각각 140만톤, 106만톤으로 증가하게 된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 LGU+샵에선 아이폰6가 '공짜'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등 적용

LG유플러스는 자사의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샵(U+ Shop)'에서 아이폰6(32G 모델)를 0원에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출고가를 21만4000원으로 낮추고 공시지원금 18만7000원에 추가지원금을 2만7500원 적용 받아 단말기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유플러스샵에서는 선택약정에 관계없이 7% 추가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 25% 가입 고객은 총 32%의 요금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선택약정 대신 공시지원금을 받는 고객들도 7% 요금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 받는다.

예를 들어, 유플러스샵에서 아이폰6(32G) 공시지원금 받아 24개월 약정 '데이터일반(월 3만2890원)'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월 3만원 초반대로 기기값과 요금 해결이 가능하다. 아이폰6 단말기 부담금 0원에 추가 요금할인 7%가 적용돼 월 3만580원을 납부하면 된다.



모델이 LG유플러스가 자사의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샵(U+ Shop)'에서 아이폰6(32G)를 0원에 판매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24개월간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의 경우는 총 32% 요금할인을 통해 월 2만2365원의 요금과 9490원의 단말기 할부금을 내면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아이폰6 특가 판매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고객 전원에게 애플의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증정한다. 또 아이폰6 뿐만 아니라 애플 단말기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애플뮤직 서비스를 5개월 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영국 캠핑카용 전자레인지 6년연속 점유율 '1위'

동부대우전자 틈새시장 공략 성공

동부대우전자가 영국 캠핑카용 전자레인지 시장에서 누적판매 10만대를 돌파하며 6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2012년 캠핑카·트레일러용 전자레인지 시장을 틈새시장으로 판단하고 캠핑 문화가 발달한 영국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판매했다. 베일리, 엘디스 등 현지 주요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제품을 단독 공급해 첫해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이후 6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며 업계 주도하는 상황이다.

영국 캠핑 트레일러용 전자레인지 시장은 동부대우전자가 진출한 2012년 2만대 규모였지만 지난해 약 3만7000대 규모로 성장했다. 동부대우전자는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에 캠핑 트레일러 내부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한 전자레인지를 선보였다.

대기전력 차단 기능도 채용해 에너지 절감형 제품으로 인기를 얻었다. 동부대우전자는 매년 80%를 웃도는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첫해 누적판매 1만2000대를 기록한 동부대우전자는 이후 모델 라인업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첫 진출 시 2개 모델이었던 제품 라인업은 6개 모



캠핑카에 설치된 동부대우전자 전자레인지. /동부대우전자

델로, 파트너사도 기존 2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덕분에 지난해 연간 판매량 3만대를 돌파했고 최근에는 누적판매량 10만대 달성에 성공했다. /오세성 기자

# KT AI 운용 플랫폼 '뉴로플로우' 개발

KT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네트워크 운용 플랫폼인 '뉴로플로우(Neuroflow)'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뉴로플로우'는 유무선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반복적인 디버깅으로 네트워크 운용 의사결정을 돕는 AI 네트워크 운용 플랫폼이다. 그간 융합에블루션(LTE) 장애 예측 시스템 등 일부 네트워크 구간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는 있었지만 유선, 무선, IoT 등 어떤 네트워크의 데이터도 분석되는 AI 플랫폼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향후 KT는 뉴로플로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장애 근본원인 분석, 장애 예측, 네트워크 설계 등 네트워크 운용을 단계적으로 지능화 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인공지능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구축해 AI 기반의 안정적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흥범 KT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장은 "뉴로플로우 개발 성공을 발판 삼아 인공지능 기반의 네트워크 운용관리 분야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KT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 국내 안마의자, 해외 시장 문 두드린다

바디프랜드·메디칼드림

국내 안마의자 제조회사들이 자체 기술로 해외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그동안 해외 안마의자를 앞서기 위해 국내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 특히 자체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해 특허 등록과 기술 효과 입증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이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2007년 설립돼 2016년 기준 매출액 3665억원, 임직원 수 11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기술연구소, 디자인연구소, 메디컬 R&D 센터를 건립해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메디컬 센터는 국내에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방재활의학과, 내과, 피부과, 치과 등 전공의를 영입해 안마의자에 대한 의학적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출원한 특허 800개(국내 580개, 해외 220개) 중 420개(국내 330개, 해외 90개)를 등록했다. 작년부터는 중국 상하이 1곳,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지역 매장 2곳을 선보였고 2020년까지 국내 150곳, 해외 35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충남 천안시에 3만3057㎡ 규모의 제조시설 신설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접수돼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아직 시설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경쟁업체 역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디칼드림은 2006년부터 헬스케어 로봇 연구소를 설립했다. 38건의 제품 발명특허를 포함한 200여 건의 산업재산권 등록 및 출원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그 당시 정부과제 및 대학들과 공동 연구도 꾸준히 참여했다. 작년에는 안마의자 관련 미국 수출 계약, 중국 제약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에는 칠레, 페루,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에도 추가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요화학 분석기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미국, 중국, 독일, 인도, 네덜란드, 멕시코, 필리핀,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등 총 9개국과 1500만달러(한화 약 159억원)의 계약을 맺어 해외 시장을 넓혔다.

국내 시장의 경우 주로 흡소핑 시장을 이용했다. 2001년에는 업계 최초로



바디프랜드 인기 제품 '파라오' 안마의자

LG흡소핑에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 작년에는 NS흡소핑에서 온열안마매트가 매진을 기록해 인기를 확인했다.

메디칼드림 이규대 대표는 "작년에 매출이 40% 성장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0% 증가를 목표로 잡았다. 헬스케어로봇을 단순한 안마의자가 아닌 건강관리라는 강점을 추가할 것이다. 올해부터는 신기술 개발로 틈새 시장 공략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국내 안마의자 발전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특히 안마의자의 핵심인 부품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임현제 기자 ihj@



서울 서교동 몰테일어반.

# 몰테일, 월 2회 '몰테일어반 클래스' 열어

(해외배송대행사)

해외배송대행사 회사 몰테일은 해외직구 오프라인 사랑방 '몰테일어반' 1호점을 오픈한데 이어 다양한 주제로 해외직구 정보를 얻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몰테일어반 클래스'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몰테일어반은 최근 주물냄비를 주제로 네이버 몰테일스토리 카페 회원 10여명을 초청해 서울 서교동 몰테일어반에서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

쿠킹클래스는 해외직구 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주물냄비 사용 및 활용법, 관리방법에 대한 강의 뿐만 아니라 요리를 직접 만들고 시식을 하기도 했다.

쿠킹클래스에 사용된 식자재는 산지 직송으로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는 농산물 전문 오픈마켓 팜테일이 공급했다.

주물냄비 쿠킹클래스에 참여한 몰테일스토리 카페의 한 회원은 "해외직구

정보와 궁금했던 점을 배울 수 있는 행사였다"며 "사랑방 같은 곳에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고 최근에 참여했던 쿠킹클래스 행사 중 가장 훌륭했다"고 말했다.

특히 몰테일은 몰테일어반 클래스 진행 후 리뷰 및 강의 내용을 콘텐츠화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몰테일어반 클래스는 고객들의 궁금한 사항을 접수받아 그것을 실제 강좌 때 안내하고 상호 소통하는 강의를 통해 고객들의 만족감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몰테일어반은 지난달말에 서울 서교동에 261㎡(약 79평) 규모로 오픈했으며, 서울숲에 2호점 오픈도 준비중이다.

몰테일 관계자는 "쿠킹클래스는 고객들을 초청해 오프라인 공간에서 국내 최초로 진행됐다"면서 "특히 반응이 좋아 직구 저변확대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지진·화재 등 일상위험 보장 강화... 헬스케어 확대”

## 김용덕 손해보험회장 기자간담회

### 다중업소 의무가입 담보 확대 중·소공사장 의무보험제 적용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올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키는 든든한 손해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배상책임보험 등 상품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올해 첫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손보 본연의 경쟁력에 기반한 신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손보산업은 지난해 기준 약 270조원에 달하는 자산규모를 자랑한다. 전 세

계 손보시장에서 7위(2016년 스위스리 기준)라는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사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손보산업은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올해 손보산업의 원

수보험료 증가율은 지난해 3.0%에서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간 성장을 견인해 온 장기손보의 성장세에도 급격한 둔화(2017년 3.0%→2018년 2.1% 전망)가 예상된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보험료 조정 및 실손보험의 가입수요 불확실성도 예견된다.

김 회장은 “손보협회는 현재 직면한 도전을 타개하고 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신뢰에 기반해 손보산업과 연관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먼저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 제천 화재 등 각종 재난 위험과 관련해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보장 강화에 나선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개성 건의를 통해 의무가입 담보를 기존 화재 및 폭발에서 붕괴를 포함하는 등 확대하고 가입금액 역시 재난안전법 등과 동일한

대인 사망 인당 최대 1억5000만원(기존 최대 1억원), 대물 사고당 최대 10억원(기존 1억원)으로 상향한다.

빈번한 크레인 전복사고 등 공사장 사고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해 국책 대형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의무보험 제도를 중·소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또 맹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도입 건의를 통해 맹견 사고피해로부터 피해구제 방안을 갖추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성보험의 보장도 강화한다. 지진 피해까지 보장받으면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는 정책성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시설(공장·건물)까지 확대 추진한다.

또한 헬스케어와 의료행위의 구분 등을 논의했던 복지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 등과 협의에 나선다. 해외 보험사 등의 헬스케어 서비스 진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민간의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국민 생활 및 보험료 할인 등 민간 의료비 절감을 유도한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 제휴 등 동반성장으로 고용효과 극대화를 노린다.

협회는 아울러 불안전 상품 판매 근절 등 업계 자정 노력을 통해 손보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판매자 책임을 부담하고 불안전판매 이력이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촉심사기준 강화 및 안전판매 교육 확대 등 불안전판매 방지 노력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소비자 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손보산업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 벤처 창업·지원에 3년간 펀드 ‘10조’ 조성

##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 확정

올 2.6조... 주요국 수준으로 투자  
GDP대비 투자비중 0.23% 전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돕는다. 오는 2020년까지는 총 10조원 규모를 투자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를 주요국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3조7000억원을 출자해 이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 10조원 혁신모험펀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산은과 산은캐피탈이 공동으로 3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정책펀드 회수재원을 보탠다.

혁신모험펀드가 투입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15년 기준 0.13%에서 2020~2022년에는 0.2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33%, 중국은 0.24%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를 위해 혁신모험펀드 산하에 ‘혁신창업펀드’와 ‘성장지원펀드’를 설치했다.

혁신창업펀드(2조원)는 엔젤투자자와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되 연속적인 투자를 위해 일정 범위 내 성장단계 투자를 병행한다. 성장지원펀드(8조원)는 성장 벤처기업과 인수합병(M&A) 등 성장·회수 단계에 중점 투자한다.

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공급을 위해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과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총 2조원의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중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상을 보증부대출을

우대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은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의 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Buy R&D),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총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은·기은·산은캐피탈 등이 우대금리 제공 등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1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4조6000억원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올해 정부 재정에서 3000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000억원,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 회수재원 2000억원을 각각 투입해 1차로 2조6000억원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오는 3월 민간 운용사 공모·선정해 9월까지 민간투자자 확보 등을 통한 펀드를 결성, 연내 투자 실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혁신모험펀드로 민간부문 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혁신창업펀드에 대해선 민간투자자에게 공공부문 출자지분의 최대 50%까지 지분매입권(콜옵션)을 부여하고, 초과이익 이전이나 우선 손실충당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주금공-카카오은행, 금융서비스 혁신 MOU

주금공과 카카오은행은 1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한국카카오은행 본사에서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한 포괄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같은날 주금공이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금융 상품 개발 등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철환 주금공 사장(가운데), 이용우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오른쪽), 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가운데)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금공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신한은행’ 입점

### 셀프 창구 ‘유어 스마트 라운지’ 배치

신한은행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점행사를 시행하고 18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4개 항공사가 연간 18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계획이며,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은행·환전소 경쟁입찰을 통해 제1 사업권을 따낸 바 있다.

이번 제2여객터미널 개점으로 신한은행은 주요 4대 국제공항(인천·김포·제주·김해) 여객터미널에 모두 입점한 유일한 은행이 됐다.

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영업점은 신한은행의 점포를 새롭게 정의한 ‘The NEXT Branch(더 넥스트 브랜치)’가 적용된다.

영업점 내부에 디지털 체험 공간을 설



신한은행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점행사를 진행했다.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왼쪽 세번째), /신한은행

치하고 셀프 बैं킹 창구인 ‘유어 스마트 라운지’를 배치해 고객이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항에서도 신한은행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 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 25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 경단녀 등 추후납부 기간 늘어

오는 25일부터 경력단절여성 등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이 늘어났다.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내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납부예외자만 추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도 추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소득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 가능하다.

개정안은 무소득배우자가 반환일시금 반환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기간에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그간에는 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하여 추납하려 해도 반환일시금 반환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었다.

예컨대 지난 1995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두고 1994년 4월부터 2004년 12월 전업주부로 지내던 김모 씨는 2005년 2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잃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재취업하고 2010년 1월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김씨는 다시 퇴사하여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업주부로 집안일에 전념했다. 총 2년의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김씨는 현행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이후 발생한 2차 적용제외 기간만 추납할 수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차 적용제외 기간에도 추납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 국민연금 수급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불입 보험료가 많을수록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봉준 기자

## ‘올원뱅크’ 가입자 150만명 돌파

### NH농협銀, 실제이용자 77% 달해

NH농협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가 출시 17개월 만에 가입자 150만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출시한 올원뱅크는 실제 이용자 비율이 77%로 실제 이용자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간편송금, 디지털페이, 경조사 초대장보내기 등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또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 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 돋보기 기능을 탑재한 큰글꼴송금과 자산관리서비스, 골드바 구매, 귀농귀촌정보 등의 서비스도 선보였다.

가장 인기있는 기능은 상대방 계좌번호 몰라도 전화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간편송금’으로 누적이용건수는 1700만건, 누적이용금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외화환전도 작년 한 해 동안 34만5000건이 이뤄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증시활황에 코스닥 ETF 돈 몰려

# 바이오株가 펀드 수익률 좌우

코스닥150 ETF 수익률 53%  
자산운용사별 종목 구성 달라  
바이오주 편입 비중 고려해야

코스닥시장 호조를 보이자 투자자금이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로 쏠리고 있다. 다만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 전상장을 앞두고 있고, 바이오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ETF 상품별 특징을 파악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 초 이후 17일까지 코스닥은 11.04% 올랐고, 최근 3개월 간 지수상승률은 34.45%를 기록했다. 해당기간 코스닥 상위 150개 종목에 투자하는 코스닥150 ETF의 평균 수익률은 52.69%에 달했다.

지수 ETF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기 때문에 상품별 수익률 차는 크지 않지만 상장된 3개 코스닥 150 ETF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스닥150'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수익은 53.02%, 1년 전 1083억원에 불과하던 순자산은 16월 기준 255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해당 ETF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50개 종목을 시총 비중에 따라 종목을 편입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셀트리온의 비중이 27.96%로 가장 크고, 셀트리온헬스케어(9.98%), 신라젠(4.99%) 순으로 높다. 다만 셀트리온이 2월 중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신라젠 등 나머지 종목의 편입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코스닥150'과 KB자산운용의 'KBSTAR 코스닥150'은 최근 3개월 간 각각 52.83%, 52.23%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바

<주요 코스닥 ETF 상품 수익률 및 특징> \*수익률기준: 1월 16일.

상품명	최근 3개월 수익률	순자산 (억원)	특징
TIGER 코스닥150	53.02%	2550	코스닥150지수의 구성 종목 중심으로 운용
KODEX 코스닥150	52.83%	7282	코스닥150지수의 구성 종목 중심으로 운용
KBSTAR 코스닥	52.23%	2374	코스닥150지수의 구성 종목 중심으로 운용
TIGER 코스닥150 로우볼	32.38%	103	(스마트베타) 코스닥 상위 150종목 중 변동성이 낮은 순으로 자산 편입
KBSTAR KQ고배당	32.03%	651	(스마트베타) 배당수익률 상위 종목 중 현금배당액이 높은 순으로 자산 편입

바이오레버리지 ETF제외. 최근 3개월 수익률 상위 코스닥 ETF. /한국예탁결제원 SELbro

이오주의 변동성과 위험을 피하면서 코스닥 상승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스마트베타 방식으로 운영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바이오주 편입 비중이 낮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도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은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최근 3개월 간 코스닥 레버리지와 바이오 관련 ETF를 제외하고 수익률이 가장 좋은 코스닥 ETF는 'TIGER 코스닥150로우볼'과 'KBSTAR KQ 고배당'이다. 각각 32.38%, 32.0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TIGER코스닥150로우볼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시총 상위 150개 종목 중 변동성이 낮은 50종목을 골라 변동성이 낮을수록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종목 간 비중 편차는 크지 않다. 차바이오텍이 3.99%의 비중으로 가장 많이 편입돼 있으며 이지바이오(3.00%), 셀트리온(2.79%), 리노공업(2.57%) 등 50개 종목이 2%씩 골고루 편입돼 있다.

윤주영 미래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기업가치(밸류)가 높은 기업들 중 변동성이 낮은 종목을 선택해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좋은 상품이다"고 말했다.

코스닥 배당주에 투자하는 KBSTAR KQ고배당 ETF도 견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해당 ETF 편입종목은 두 단계를 거쳐 정해진다. 먼저 시총 상위 600개 기업 중 전년도 말 기준 배당수익률이 높은 80개 종목을 선정하고, 그 다음 현금배당 총액에 따라 편입 비중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2억을 배당하고, B기업이 1억을 배당했다면 A기업을 3분의 2, B기업을 3분의 1씩 편입하는 방식이다.

현재 셀트리온이 28.05% 비중으로 편입돼 있다. 다음 포스코켄텍(7.35%), 지에스홀스피(5.31%), 파라다이스(4.58%) 순이다. 코스닥 시장 수익률과 괴리를 줄이기 위해 시총 1위 기업은 무조건 편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차동호 KB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고배당 상품의 목적은 코스닥 지수를 꾸준히 이기는 것"이라며 "배당만 기준으로 삼으면 바이오주가 편입되지 않아 코스닥 시장과 괴리가 커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이전 상장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시총 1위가 되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높은 비중으로 편입된다. 다만 그는 "해당 ETF는 매년 5월 중순에 종목 리밸런싱(재조정)을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탈 영향도 5월 중순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임대료·청약문턱 모두 낮춘 공공지원임대주택 '주목'

'뉴스테이' 장점에 공공성 추가  
시세 70~85%·8년 거주 보장

올해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지원주택은 과거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해 부동산대책이 등장, 일반분양 청약이 까다로워지면서 무주택·저소득층 우대 등 공공성이 높았다. 공공지원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19~39세 1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층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해 전 가구의 20% 이상 물량을 배정, 시세의 70~85%로 공급한다. 또한 8년 거주 보장,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이 적용된다. 전 가구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당연히 청약가점이 적은 무주택서민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택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평균 월세가 크게 올랐다. 전국적으로 한 달 새 10.90% 상승했고 서울은 19.42%, 수도권은 16.84% 등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아파트값 역시 상승세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8~12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7% 올랐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 직전인 지난해 7월 28일 기준 상승률(0.57%)을 회복한 수준이다. 1순위 자격 강화, 청약가점제 확대 등으로 서울 등 조정지역의 청약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조건

이 안 되는 수요자들이 서울에서 수년간 이사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기회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 월세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질 기세"라며 "높은 월세, 까다로운 청약조건 등으로 서울에서 밀려났던 수요자들이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다.

우선 서울에서는 올해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선보인다.

범강연영과 동부건설은 이달 말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구 한일시멘트 부지)에서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이번에 871가구를 공급한다. 주택형은 59~84㎡(최소공급 74~84㎡)이다. 입주민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연간상승률은 2.5%이내로 제한된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걸어서 3~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된다.

서한은 올 상반기 대구 달서군 구지면 창리 대구국가산업단지 A2-2블록에서 '대구국가산업 서한이다움' 66~84㎡ 1038가구를 공급한다.

계룡건설은 오는 3월 경남 김해 울하2지구 A2블록에 '울하지구 리슈빌' 55~59㎡ 974가구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롯데건설은 오는 7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b22블록에서 '김포한강 롯데캐슬' 67, 84㎡ 912가구를 공급하고 포스코건설은 오는 9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일원에서 '인천 십정2구역 더샵' 5695가구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 "KT&G, 저평가 우량주... 작년 수출 1조"

업계, 연평균 11% 수출성장세 전망  
"배당 수익률 4%, 저가 매수 기회"

KT&G가 주식시장내 저평가 우량주로 주목받고 있다.

고배당주인 KT&G 주가는 지난해 12월 27일 배당락 이후 전일 증가 기준 7% 가량 하락한 상태다. 2016년에도 KT&G는 연말 배당락 이후 연초 주가가 8% 이상 내렸다가 반등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한국희 연구원은 17일 KT&G의 평가가치가 여전히 동종 업체보다 낮아 매력적인 수준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만원을 유지했다. 한 연구원은 올해 KT&G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작년보다 6.5% 증가한 5조475억원과 1조6119억원으로 예상했다.

KT&G의 가장 큰 강점은 수출.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KT&G가 지난해 최초로 해외수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KT&G가 연평균 11%의 수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1999년 26억 개비에 불과하던 KT&G의 해외 판매량은 2002년 민영화를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 2016년 487억 개비를 판매해 9414억원 해외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 역시 3분기까지 415억 개비를 달성해 사상 최고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KT&G는 2025년까지 '글로벌 톱4' 담배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중장기 계획까지 발표하며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KT&G의 수출 호조로 우리나라 담배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KT&G가 지난해 말 선보인 쉐어링 전자담배 '릴'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평가도 K



KT&G의 쉐어링 전자담배 기기 릴(ℓ)은 올해 국내에서 200만대 이상 팔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담배 수출의 경우 연평균 11% 이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T&G에는 긍정적이다. 삼성증권 조상훈 연구원은 "KT&G의 쉐어링 전자담배 '릴'은 경쟁사 제품인 '아이코스'와 '글로' 대비 후발주자임에도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다"며 "쉐어링 전자담배는 감소하고 있는 담배 시장 규모를 지지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꾸준한 배당 증가도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KT&G의 주당 배당금은 지난해 3900원에서 올해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 50% 수준인 4500원까지 기대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심은주 연구원은 "올해 주당 배당금 4000원을 가정할 경우 시가 배당수익률이 4%에 육박한다"면서 "지난해 4분기 실적 우려에 기인한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다"고 분석했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 대기업 사로잡은 스마트팩토리 SW 강자 "글로벌 진출"

| IPO 기자간담회 |

링크제니스

스마트팩토리의 핵심기술 플랫폼  
공모희망가 밴드 주당 2만2000원~

스마트팩토리의 핵심기술인 생산정보 자동화와 시스템 검증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링크제니스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링크제니스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8~19일 수요 예측과 25~26일 청약을 거쳐 기술특례로 다음달 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설립된 링크제니스는 국내 생산정보자동화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으로 시스템검증자동화 소프트웨어에서도 국내1위의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81억 6900만원의 누적매출을 달성했으며 누적 영업이익 21억원, 당기순이익 16억원을 기록했다.

링크제니스의 대표 사업 중 하나는 생산정보자동화 기술이다. 이는 스마트팩토리의 핵심기술로써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 내 수많은 장비의 자동화



정성우 링크제니스 대표이사.

/링크제니스

플랫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시스템검증자동화다. 이는 사물인터넷(IoT)과 연관이 깊은 분야다. 각종 정보기술(IT) 기기의 사양과 소프트웨어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자동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정 대표는 "현재 삼성과 엘지 등 시스템 자동화 기술과 생산정보 자동화 기능을 도입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우리 회사의 고객이다"며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링크제니스는 올해 해외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로 잡고 있다. 생산정보자동화 소프트웨어는 중국(베

이징·중칭·상하이·선전)시장, 시스템 자동화는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소 40억원 많게는 5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ATC(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21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증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술 5건에 대한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링크제니스의 공모희망가 밴드는 주당 2만2000원~2만5000원이고 신주 공모 없이 구주 30만주(자사주)를 매출한다. 오는 2월 5일 상장된 링크제니스의 상장주관은 하나금융투자가 맡았다.

/정연우 인턴기자 yw964@



# “가격 넘어선 만족도”... 외식업계 ‘가심비’ 마케팅 뜬다

(합리적 가격·고객 감성 충족)

고객 의견 반영한 신메뉴 출시 등 소비자의 니즈·만족도에 발맞춰 편의성 극대화한 제품 대거 선보

외식 및 식품업계에서 ‘가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심비는 2018년 새로운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를 높이는 식품을 뜻한다.

소비자들은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함을 얻기 위해 가심비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객접점이 가까운 외식업계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맛은 기본이고 고객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가심비’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식품업계도 가심비 푸드를 선보이고 있다.

피자알블로는 고객들의 요청을 반영한 신메뉴를 출시하는 등 가심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선보인 ‘더빛나라골드 피자’는 ‘빛나라세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고객들이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과 즐기고 싶다는 요청을 그대로 구현한 메뉴다.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메뉴



피자알블로의 신메뉴 ‘더빛나라골드 피자’, 하남돼지집의 커팅 서비스.



/피자알블로·하남에프앤비

답게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진도산 친환경 흑미도우, 수제 피클 등 피자의 주 재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검증된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남돼지집은 신선하고 육즙이 가득한 맛은 물론, 하남돼지집만의 특별한 서비스인 커팅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하남돼지집만의 커팅 서

비스는 전담 직원이 고기를 알맞게 구워 손님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숙련된 직원이 직접 구워줘 더 맛있는 고기를 맛볼 수 있음은 물론 직원이 고기를 굽는 동안 고객들은 대화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

조스푸드의 조스떡볶이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상에서 화제가 됐던 ‘조스어묵티’를 공식 출시해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조스떡볶이는

지난 가을 공식 페이스북에 재미 삼아 올린 어묵 티백 이미지의 반응이 좋아 제품개발에 착수해 지난달부터 전국 조스떡볶이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조스떡볶이의 ‘조스어묵티’는 출시되자마자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가심비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식품업계도 가심비를 높이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오투기는 지난달 ‘떠먹는 컵피자’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전자

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해 떠먹는 피자로, 숙성된 도우를 풀판 오븐에 구워 쫄깃하고 맛있는 도우 식감이 특징이다. 길게 늘어지는 컵피자의 특징인 치즈는 99.9% 자연 치즈를 사용했으며 전자레인지에 2분만 조리하면 콤팩트네이션, 트리플햄, 포테이토, 매운치킨 등 총 4종의 다양한 맛으로 풍부한 토핑의 컵피자를 맛볼 수 있다.

신세계푸드의 ‘밀크앤허니 푸딩 카페’는 국내산 신선한 우유와 계란을 주 재료로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풍미를 강조한 영국식 푸딩이다. 홉카페 디저트로 좋으며, 시중에 판매중인 기존 푸딩에 비해 우유와 초콜릿 등 원재료 함량을 15% 이상 높여 맛과 향이 진하고 풍부할 뿐 아니라 젊은 여성층이 좋아하는 부드럽고 찰랑찰랑한 푸딩 본연의 식감이 극대화 된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이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것을 넘어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얻으려는 니즈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현대백 “싼커 모셔라”... 춘제 맞이 총력전

할인행사·사은품 증정 등 프로모션 개별관광객 트렌드 맞춰 VIP 강화

현대백화점은 외국인 대상 쇼핑 문화 관광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 춘제(春節)를 맞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와 사은품 증정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점포는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신촌점·판교점·디큐브시티 등 5개 백화점과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가산점 등 총 7개 점포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200여 개 브랜드를 선별해 10~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중국 최대 신용 카드사인 ‘엔린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고 상시 5% 할인해 주는 한편 5% 마일리지 적립 행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단체 여행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는 개별관광객(싼커) 방문이 증가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진행하는 VIP 프로모션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현대백화점에 방문한 외국인 중 연간 40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2016년에 비해 63%가 늘었고, 매출도 42% 늘어났다.



중국인 관광객이 현대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은 또 개별관광객 비중이 높은 20~30대 젊은 고객을 위한 마케팅에도 적극 나선다.

개별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교통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또 대한항공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이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티켓을 갖고 백화점을 방문할 경우에도 1만원 상품권을 준다.

이 외에도 행사 기간 중국 SNS 채널인 위챗의 현대백화점 공식 계정을 팔로우 하거나 본인 명의의 SNS를 통해 현대백화점 ‘스마일리’ 캠페인에 참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황사 마스크’를 제공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춘제 기간(2017년 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

동안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59.1% 성장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개별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을 중심으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중국인 대상 우수 고객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난 2015년 현대백화점은 우수 고객 관리 프로그램 ‘TCP(Top Class Program)’을 벤치마킹해 ‘중국인 VIP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VIP, VVIP 2개 등급으로 구성해 각 등급별로 4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현대백화점 VIP 라운지 이용 혜택과 함께 구매금액대별로 티켓 지갑 등 사은품을 추가로 제공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CU, 강원지역 점포 70곳 AI디바이스 설치

KT ‘기가지니’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내달 외국인 위한 통역 기능도 탑재

CU가 강원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가 된다.

BGF리테일은 KT와 업무제휴를 맺고 강원지역 CU에서 인공지능 디바이스를 통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BGF리테일은 지난 11일부터 강원지역 점포 중 관광객 방문율이 높은 주요 매장 70곳을 선정하고 KT의 인공지능 디바이스 ‘기가지니(GIGA Gini)’를 설치했다.

접근성이 뛰어난 편의점 인프라에 KT의 첨단 인공지능 디바이스를 더해 강원도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굳이 안내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인근 점포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CU에 설치되는 KT 기가지니는 스키장, 리조트, 음식점 등 강원지역 관련 정보를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한다.

예컨대 “가까운 맛집이 어디야? 근처 호텔 어떻게 가?” 등과 같은 질문을 하면 기가지니가 음성 인식을 통해 질문자가 선택한 언어로 검색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다음달부터는 외국인 방문자와 점포



CU가 강원도 지역 점포에 KT의 인공지능 디바이스 ‘기가지니’를 배치한다.

/BGF리테일

근무자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통역 기능도 탑재된다.

CU는 KT 기가지니를 통한 모든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CU는 4개 국어로 번역된 홍보물과 가격표를 강원지역 점포를 대상으로 배부한다. 이달부터는 알리페이와 함께 위챗페이 결제 서비스를 전국 점포에 도입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리한 여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홍철기 BGF리테일 영업기획팀장은 “편의점 인프라와 최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해 강원지역을 방문하는 누구나 즐겁고 편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CU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해 4차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셰이크쉿’ 6호점 인천공항점 오픈

SPC그룹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셰이크쉿(Shake Shack)’ 6호점을 오픈했다. ‘셰이크쉿 인천공항점’은 전세계적으로 뉴욕(2곳), 두바이, 쿠웨이트시티,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여섯 번째 공항 매장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340㎡, 105석 규모로 자리 잡았다. 공항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다.

/박인용 기자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위치한 셰이크쉿 6호점 개점 기념 행사에서 로버트 던 주한미국대사관 상무참사관(왼쪽 세번째 부터), 임남수 인천공항공사 여객서비스본부장, 허희수 SPC 그룹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최석원 파리크라상 대표, 선 윌그너 셰이크쉿 엔터프라이즈 오피레이션 디렉터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SPC그룹

## 뚜레쥬르, 福스러운 강아지 케이크 선보

해피퍼피·롤롤 크런치, 시즌 한정판매

뚜레쥬르가 2월 말까지 신년과 설을 맞아 강아지 모양 케이크 2종을 한정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강아지 케이크는 2018년 한 해를 알차게 보내는 다짐의 자리를 기념하거나, 특별한 황금기때해 선물로 제격이다.

‘해피퍼피 크런치’는 초코 스폰지 사이에 초코 크림을 크런치 쿠키와 초코판을 활용해 귀여운 강아지를 표현한 케이크다. ‘롤롤 크런치 케이크’는 부드러운 크



림과 바삭한 초코 크런치를 넣고 강아지 모양의 초코 판으로

장식한 롤케이크 제품이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무술년을 기념해 앞서 출시한 강아지 모양 제품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며 “독특한 외관과 맛으로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선물하며 새해 덕담을 나눠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 “20대는 여행·5060은 건강”

새해 관심사도 ‘세대차이’  
공통 관심사 ‘다이어리·다이어트’

연령대별 새해 관심사가 뚜렷하게 차이가 났다. 20대는 여행, 3040 세대는 자녀, 5060 세대는 건강을 선호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인기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10대는 학습, 20대는 여행, 3040은 자녀, 5060은 건강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들은 ‘6공다이어리’와 학습 전용 다이어리 ‘스터디플래너’가 눈에 띈다. 6공다이어리는 6개의 구멍이 뚫린 속지를 다이어리 링에 끼워 사용하는 제품으로 10년 전에 유행했던 아이템이다.

복고바람이 불면서 최근 10대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20대들은 ‘캐리어’, ‘제주도’ 등 여행과 관련된 키워드와 다이어트 식단인 ‘닭가슴살’을 많이 검색했다.

30대는 미취학 아동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공룡메카드’와 ‘타요키즈카페’, 40대는 초등학교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팬인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등을 주로 찾았다.

50대 이상 장년층은 ‘사자인치’와 ‘브라질너트’, ‘게르마늄 팔찌’ 등 건강과



연령별 인기검색어. /위메프

관련된 아이템을 많이 조사했다. 해당 기간 ‘다이어리’는 전 연령대에서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로 간편하게 일정관리와 메모를 할 수 있음에도 종이 기반 다이어리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이어트’ 역시 10대부터 30대까지 공통 관심사로 꼽혔다.

같은 기간 많이 판매된 상품을 살펴보면 20대는 국내여행 상품(제주도 항공권, 스키 렌탈권 등)과 자유여행 관련 상품(포켓와이파이·유니버설 스튜디오 입장권 등)을 많이 구매했다.

30대와 40대는 괄, 사이판의 여행상품을 많이 찾았다.

위메프는 “괘와 사이판은 4계절 날씨가

가 따뜻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겸비한 특급 리조트가 즐비해 대부분 어린 자녀가 많은 3040 고객층에게 인기가 많은 여행지”라고 설명했다.

50대는 다낭, 호이안, 하노이 등을 선호했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60대는 서유럽, 호주+뉴질랜드 등 장거리 여행 상품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 관계자는 “새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국내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시작된 옴로(YOLO), 워라밸 열풍으로 인해 여행을 떠나려는 소비자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119 신고자 ‘구급차 위치’ 스마트폰 확인

서울시, 소방안전 5대 대책 발표  
가까운 AED 위치도 확인 가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19에 구조·구급신고를 하면 소방차나 구급차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새로위치는 소방안전 5대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소방차·구급차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는 출동한 소방차·구급차의 실시간 위치정보, 출동대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시는 스마트폰 앱 또는 문자(SMS) 등으로 전송하는 방안을 두고 기술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하반기 구급차에 우선 시범운영하고 향후 소방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정보 안내 서비스는 119에 신고하면 상담요원이 상황실 지도 상에 표출된 위치정보를 확인 후 신고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에 설치된 자

동심장충격기 총 1만200개 위치를 지도 상에 표출하는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

일반인이 심정지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 건수는 2014년 15건(0.3%)에서 2015년 9건(0.2%), 2016년 11건(0.2%)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시행률과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높여나갈 것으로 내다본다.

구급차 실시간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은 구급차 내 ‘차량동태 관리시스템(MDT)’을 통해 바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실시간 확인해 이송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구급대원이 상황실 내 직원과 무선(전화) 또는 무선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이어서 실시간 병원상황 변화에 대응이 어려

울 때가 있었다.

시는 또한 구급차 뒷면(외부)에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상태를 일반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 LED 알람판’을 설치해 구급차 양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소방안전 인프라 확대·강화를 위해 ▲지진체험교육장 4곳 추가 신설 ▲세곡119안전센터 개소 ▲서울소방학교 확대 이전 ▲드론활용 인력 양성 교육 신설·확대 등으로 진행된다.

지진체험교육장은 진도 3.0~7.0의 지진상황을 간접 경험하고 대피요령을 배워볼 수 있는 곳이다. 시는 올해 4개 소방서(서초·성동·서대문·양천)에 교육장을 신설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불시단속도 강화한다. /이범종기자 joker@



## 노원구, 육아 품앗이 ‘공동 육아방’ 건립

서울 노원구가 상계동에 ‘공동 육아방’을 건립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원구는 7억6000만원을 들여 상계동 652-3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202㎡ 규모의 공동육아방을 올해 상반기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내부공간은 영유아 테마놀이 체험공간, 실내놀이터, 다목적실, 수유실 등으로 구성된다. 공동육아방은 부모와 영유아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자 육아 품앗이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범종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공동육아방 조감도. /노원구

## ‘뇌전증 신약’ 일본인대상 임상시험

SK바이오팜, 일본시장 공략 준비

SK바이오팜이 뇌전증(간질) 신약의 일본인 대상 임상시험을 추진한다. 미국을 넘어 일본 시장 공략 준비에 나선다.

1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뇌전증 신약 ‘YKP3089’(성분명 세노바메이트, Cenobamate)의 일본인 대상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로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SK바이오팜은 이르면 연내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치고 식품의약품(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세노바메이트의 국내 임상 1상은 미국 시장과는 별개로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서 마련됐다.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을 대상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진행 된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일본에서 ND A(신약 승인 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서

는 일본인 대상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임상을 승인받았다”며 “나중에 실제로 (일본에) 신청할 때에는 글로벌 임상 3상 자료와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현재 뇌전증 치료제 시장 1위 제품인 다국적사 UCB제약의 빔팻의 실적을 고려할 때 세노바메이트는 미국에서만 연간 매출 1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50%를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이달 뇌전증 신약 외에 조현병·인지장애에 쓰는 신약 후보물질 ‘SKL20540캡슐’의 국내 임상 1상도 승인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산업 전문 시장조사 기관인 데이터모니터에 따르면 뇌전증 치료제 시장은 2014년 49억달러(5조2000억원 상당) 규모에서 올해는 61억달러(6조5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당뇨병성 망막병증 임상시험 국내 승인

와이디생명과학



와이디생명과학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당뇨병성 망막병증(DR) 치료목적인 국내 임상 2a 시험 실시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뇨병 초기에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면 망막병증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일단 망막병증이 발생한 후에는 그 진행을 막기 어렵다.

안신병 와이디생명과학 연구소장은 “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되면 어떤 치료법으로도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아직 국내에 뚜렷한 치료제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을 받아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와이디생명과학은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치료제에 대해서도 임상 2상 승인을 받아 국내 11개 병원에서 시험이 진행 중이다.

와이디생명과학은 지난해 DME가 보 건복지부 임상과제로 선정돼 12억5000만원, DR이 식약처 임상과제로 선정돼 4억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와이디생명과학은 오는 3월 미국에 DME의 임상 2상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 <해외브랜드 생활가전 국내·외 판매가격 비교결과>

품목	브랜드	제품명	비교국가	가격차 비율
커피머신	일리	프랑스 X7.1(레드)	독일	33.8
		프랑스 Y3(레드)	영국	34.2
	네스프레소	아시리아 C40(레드)	독일	10.6
		시티즈엔밀 D122(화이트)	독일	0.8
진공청소기	다이슨	V6 엡솔루트 헤파	영국	△10.3
		V8 애니멀	미국	△20.4

## ‘국내구매 vs 해외직구’ 어떻게 더 저렴할까?

진공청소기는 해외직구, 커피머신은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해외직구 생활가전 5개 품목 11개 제품의 국내·외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4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직구 시 더 저렴한 제품은 국내판매가와 최고 68.8%(지멘스 전기레인지)에서 최저 10.3%(다이슨 진공청소기)의 차이를 보였다.

국내구매가 더 유리한 제품은 최고 34.2%에서 최저 0.8%의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진공청소기의 경우 조사대상(2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가 유리한 반면 커피머신은 조사대상(4개 제품) 모두 국내구매가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레인지와 블렌더는 모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구입 전 제품별·모델별

국내·외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6개 브랜드(네스프레소·다이슨·샤오미·일리·지멘스·키친에이드) 중 유일하게 네스프레소만 해외직구 상품 가운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 국내정격전압인 220V 제품에 한해 AS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멘스와 다이슨은 각각 FD번호, 시리얼번호 관리로 국내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본사 정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브랜드 생활가전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품별·모델별 국내·외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며 “배송 중 파손 위험이 크거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국내 AS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25호(2017.9.19)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 상담 및 문의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풀무원, 어린이 6800명에 무료 '김치학교'

올 283회 진행... 올바른 식습관 유도

풀무원 김치박물관 '뮤지엄김치간'이 김치와 김장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김치학교'를 확대 실시한다.

뮤지엄김치간은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6~13세) 68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어린이 김치학교'를 283회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 김치학교'는 어린이들에게 미각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직접 김치를 담가보며 김장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뮤지엄김치간의 대표적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 20분과 오전 11시 20분 1일 2회 운영된다. 2만원 상당의 체험비와 입장료는 모두 무료이며, 프로그램 체험 이후 박물관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어린이와 함께 참가한 보호자는 뮤지엄김치간의 입장료만 내면 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 뮤지엄김치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뮤지엄김치간 어린이 김치학교.

/풀무원

'어린이 김치학교'는 김치 입문 교육인 '컬러푸드 김치미각교육'과 '김치담그기'가 40분에 걸쳐 진행된다.

뮤지엄김치간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외국인 김치학교', '다문화 김치학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

운영한다. 각각 20회씩 운영할 계획이다.

나경인 뮤지엄김치간 파트장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치와 김장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올해 김치학교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BNK금융 '서울 CIB센터' 오픈

BNK금융그룹은 17일 여의도 BNK투자증권 서울영업부에서 '서울 CIB(기업투자금융·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센터'를 열었다.

서울 CIB 센터는 지난해 12월 18일 BNK투자증권 부산 본사에 개점한 '부울경 CIB 센터'에 이은 BNK금융그룹의 두 번째 기업투자금융 특화 복합 점포다. 이 센터는 BNK투자증권의 IB사업부문을 주축으로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의 기업금융(CB)과 투자금융(IB) 부문을 결합해 40여명의 전문 인력들이 원-스톱 기업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BNK금융지주 정충교 그룹CIB총괄 부사장, 김지완 회장, BNK투자증권 조광식 대표. /BNK금융지주



## 메트라이프생명, 소비자보호 시상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9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2018 메트라이프생명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영업 조직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시상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속 설계사 조직 대상으로 시행돼 오던 시상을 GA대리점까지 확대했다. 2017년 소비자보호 시상에는 전속 설계사 조직 부문 부산4사업단, 영남2사업단, 국제지점, 부전2지점, 그랜드지점이 수상했다. 김성환 메트라이프생명 CA채널 담당 전무(맨 오른쪽)와 조기병 메트라이프생명 준법감시 담당 전무(맨 왼쪽)가 소비자보호 우수 사업단 및 지점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메트라이프



17일 미니스트프이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미니스트프

## 미니스트프 점포 안정적 운영 위해 3000억 투자

편의점 미니스트프이 경영주들의 안정된 점포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3000억원을 투자한다.

미니스트프는 '미니스트프 경영주 자문위원회'를 열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상생협약은 경영주들이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 할 수 있도록 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매출을 활성화시켜 경쟁력 있는 점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

심이다.

미니스트프는 이번 상생안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니스트프는 기존 연 6000만원 한도의 최저수입 보장 규모를 7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5년간 960억원을 투자해서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를 포함한 총 6가지 지원책을 묶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신점[神占] 운세 1월 18일 (음 12월 2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 쥐** 60년생 기쁜 하루를 보냅니다. 72년생 유망한 업을 몰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84년생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96년생 이성이 귀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 소** 61년생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살 피세요. 73년생 하늘이 복을 내립니다. 85년생 주변의 이들에게 칭송이 대단합니다. 97년생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 호랑이** 50년생 전업은 길하지 못합니다. 62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74년생 심기를 안정 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86년생 좋은 운은 반드시 찾아 오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 토끼** 51년생 동업은 길하다고 보겠습니다. 63년생 유혹에 동조한다면 될 일도 안되니 주의하세요. 75년생 큰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87년생 누구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 호랑이** 52년생 지금 당장의 일만 신경 쓰도록 하세요. 64년생 음식물에 특히 주의하세요. 76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아량과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88년생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 뱀** 53년생 많은 이득이 따르는 계약이 체결됩니다. 65년생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합니다. 77년생 항상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89년생 뒷사람의 충고를 잘 들어 실행하세요.

- 말** 54년생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6년생 정성껏 구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78년생 무난하게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90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휩싸이지 말도록 주의 하세요.
- 호랑이** 55년생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세요. 67년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유리합니다. 79년생 평생 함께 보낼 배우자이니 따뜻하게 대하세요. 91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 호랑이** 56년생 동쪽은 유리하고 남쪽은 좋지 않습니다. 68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80년생 때를 만나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92년생 서쪽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하지 마세요.
- 닭** 57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69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81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 하세요. 93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 돼지** 58년생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70년생 새 귀인을 만나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82년생 공적인 일엔 행운이 들어옵니다. 94년생 교통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 돼지** 59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71년생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83년생 방황하는 당신의 마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95년생 이것저것 손을 대도 싫증만 남을 뿐입니다.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1	4	3				
	8	4				6	7	
2		7	6	8				3
1	8	4		6	7			5
		3	5		8			
		9			3			
	9	3	2		6			
6		5	1					8
	3		7					5

	3	9		8	6			
		9						7
4				7	6			5
7		4		6				3
		5	3		4	7		
1				9		8		4
	4		6	8				5
5					4			
		1	5		2			6

**스도쿠 정답**

6	5	1	7	2	9	8	4	3
8	2	1	6	5	4	7	9	3
2	9	7	8	3	1	6	5	4
9	2	4	1	8	6	5	7	3
7	1	8	6	5	2	9	4	3
5	6	4	9	3	7	8	2	1
3	7	6	8	9	2	5	1	4
1	2	9	5	2	6	7	8	3
2	8	5	4	7	1	9	3	6

문제 제공: **보너스**

# 김상회의四季



## 불편하면 편안해진다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문제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된 지 오래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대형 사고들이 불췌불췌 터져 나오고 생명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목욕탕에 갔다가 불이 나서 목숨을 잃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져 생명을 잃기도 한다. 아무리 인명은 재천(在天)이라고 해도 이런 정도라면 피해자로서는 정말 억울할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현장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든 편안하게 지내려는 마음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된 제천 화재 때는 불법주차가 문제였다는 게 밝혀졌다. 불법으로 세워놓은 자동차들이 화재현장 주변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 사람을 구해야 할 사다리라는 공간이 모자라서 사다리차를 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제천 화재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동해로 새해 해맞이를 갔던 관광객들이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긴급출동에 방해가 돼서 급히 불법주차 차량을 옮기게 했다는 뉴스에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학교 앞 스쿨존은 등하교 하는 학생들을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스쿨존에서는 절대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규정위반이 한 해에 25만 건이 된다고 한다. 경찰관이나 카메라가 없으면 학생보호를 위한 곳에서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무시로 벌어지고 있다. 불법주차나 스쿨존 위반이 자주 벌어지는 것은 나 하나만 불편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편하게 살아보려는 생각들이 불러오는 건 사회적 불편함이다. 사람이 죽고 가정이 무너지고 누군가는 다쳐서 평생을 고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주차금지 구역을 피해서 차를 세우고 몇 분 정도 걸으면 될 것이다. 스쿨존에서는 꼭 신호를 지키고 천천히 가면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목적지까지 몇 분 정도 걸어서 가고 속도를 천천히 운전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불편하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사회적으로는 편안함을 가져온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한없이 편하고자 하면 오히려 불편해지고, 조금 불편하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반대로 편해진다. 개개인이 조금씩 불편해져 보자고 권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편안해질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



윤우중의  
잠시 심포

블록 체인이란 생소한 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연초부터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몇년 전부터 외신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세탁도 하고 커피도 사마신다는 걸 보면서 '참, 희한한 세상이네' 정도로 가볍게 넘겼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연초부터 온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또 다른 한쪽에선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역공을 퍼붓고 있다.

이 디지털 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해야 할지, 암호화폐라고 해야 할지 개념 정의조차 돼 있지 않다. 법무부 장관은 가상증표라는 표현도 썼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을 위축시켰다. 규제를 하겠다면서 그 대상이 뭔지도 모른다면 제대로 된 규제가 가능할까.

정부는 '실기'했다. 이 디지털 화폐를 놓고 우리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2016년 11월 관계부처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권이 교체되

는 시기가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 넘도록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지금과 같은 사단이 난 것이니 그 책임은 상당 부분 정부에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진영과 찬성하는 진영을 '보수 vs 진보'의 대립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논리를 들어보니, 보수 매체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정권에 흠집을 내려하고 있다는 애기인데, 견강부회(牽強附會)도 이젠 좀 심하지 않나 싶다.

사실,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나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가상화폐의 잘못이 아니다.

블록 체인과, 블록 체인에서 파생한 가상화폐는 당초 투자나 투기, 도박을 위해 등장한 기술이 아니다. 가상화폐는 블록 체인 시스템의 내부 자산(internal capital)이다. 가상화폐는 블록 체인 상의 거래 매개체로 이용되기도 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저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투기의 대상이 됐고 도박판이란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자나 거래자들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아 한국을 이용한 것이고, 이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경제 규모 등에 맞지 않게 비대해졌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목돈'이 없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때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광풍'이라고 할 정도의 투자열풍이 불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수를 검토한 것도,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모은 돈을 투기판, 도박판에 다 날려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자금세탁처로 한국이 악용됨으로써 우리 정부의 환율조정 실패라는 위기가 초래될까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상화폐를 '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칼은 쓰는 사람에 따라 활인검이 될 수도, 살인검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기술 자체를 탓할 성격은 아니라는 의미다. 기술 자체는 아무리 규제를 해도 우리 의지와 상관 없이 발달한다.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적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규제대책을 내놓는 건 찬성한다. 하지만 거래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19세기적 사고방식으로 21세기의 첨단기술을 통제하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 우분, 평창패럴림픽 기념우표 80만장 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우표 10종 총 80만장을 개막 50일 앞둔 18일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념우표는 패럴림픽대회의 엠블럼과 성화를 비롯해 대회 마스코트인 '반다비'의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아이스하키, 스노보드, 휠체어 컬링 경기 모습을 담았다.

/우본

## 성남 중합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전달식



## 넥슨지티·레드,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선행

주식회사 넥슨지티와 넥슨레드가 성남시 분당구 중합지역아동센터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넥슨지티 및 넥슨레드는 17일 양사의 임직원들이 피트니스와 미용실 등 사내 편의시설 이용금액을 모은 기부금 3000만원과 컴퓨터 15대를 성남시의 중합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넥슨지티

## 'IT 강국' 한국?



이지수첩  
정은미 (산업부)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8' 지난 12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막연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스며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IT 굴기가 거세다는 것을 실감하는 자리기도 했다. 올해 CES에 참여한 중국 기업은 1379개로, 전체 참가기업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그간 중국은 베끼기나 기술 추격자로 치부했지만 올해는 질적 성장도 이뤄

내 주목을 받았다. 중국 가전업체 하이센스는 구글과 아마존의 AI 플랫폼을 탑재한 인공지능 TV 'H10E'를 선보였으며,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는 AI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알리바바는 AI 스피커인 'T몰 지니'를 공개했다.

로봇 분야는 더 눈에 띈다. CES 로봇관에 차려진 중국 기업의 부스는 20개로, 전체 참가 기업 36개의 반 이상이었다. 한국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중국의 위상은 CES의 메인 기조연설자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ES의 기조연설자는 IT 산업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급에서 선정된다.

올해 CES에서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이자 주요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의 리처드 유 CEO가 기조연설자 명단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장을 둘러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우리가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냉정하게 우리 IT 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경쟁력을 가능해야 한다. 중국의 IT 굴기 원인으로 꼽히는 강력한 지원책은 들춰지고라도 제대로 된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다면 그간 쌓은 IT 강국으로서의 위상마저도 무너질까 봐 우려된다.

/21cindun@

## 인사

-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권순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수무국장 남판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석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조정목 △국세청 노정석 △국세청 정재수 △국세청 김태호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이기열 ◇과장급 전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권승욱 △사산세무서장 한인철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나향미
- ◆산림청 ◇국장급 전보 △산림산업정책국장 임상섭
- ◆한국도로공사 ◇실처장급 △비서실장 황광철

- △좋은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진식 △기획조정실장 신동희 △혁신전략처장 김선일 △정보처장 김병희 △재무처장 정광철 △휴게시설처장 문기봉 △도로처장 진규동 △시설처장 김경일 △건설처장 정민 △설계처장 김일환 △품질환경처장 권혁 △사업개발처장 이세홍 △ITS처장 권오철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장 김대진 △초장대교량사업단장 광석환 △인재개발원장 강운 △통행료통합센터장 현병업 △밀양울산건설사업단장 조남훈 △수도권본부장 유시영 △강원본부장 엄창용 △대전충남본부장 박상환 △전북본부장 이호경 △광주전남본부장 이학구 △대구경북본부장 김진광 △부산경남본부장 김시환 △감사실장 김명호 △영양처장 박해용 △교통처장 유병철 △재난안전처장 김동수 △기술심사처장 이창봉 △도로교통연구원장 조주기 △국가ITS센터장 김태연 △홍보실장 김성진 △총무처장 배명열 △법무실장 김장환 △ICT센터장 박건태 △교통센터장 봉영채 △수원지사장 이두행 △동서울지사장 배상복 △원주지사장 박종진

- 윤승호 이관호 손태운 이종형 △상무보A 박상현 송보근 박재철 배광성 김수학 박수성 석낙신 Phillip Kong(LC Titan) △상무보B 최영현 김중환 문영태 김일규 강종원 임성수 김취찬 정종식 김용학 이영재 이영관 김기순 심형섭 Humair Ijaz(LCPL)
- ◆고려대 △관리처장 공정식 △연구처장 김병수

## 부음

- ▲여역자씨 별세, 신효섭(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씨 장모상 = 16일 오전 8시 55분,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43-269-6969
- ▲허만복씨 별세, 허철홍(한국투자신탁운용 부장)·석주(엠게임 차장)·영희·윤정씨 부친상, 관향회(늘푸른중학교 교사)·강진연씨 시부상 = 16일 오후 6시 30분,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4호, 발인 19일 오전 9시, 055-750-8448
- ▲박정희씨 별세, 장경호·경훈(KEB하나은행 부회장 겸 하나금융투자 부사장)·경숙(동대부여중 교사)·경희(프라임사령 어린이집 원장)씨 모친상, 홍익주(전 삼천리 이사)·박광순(전 데이콤 부장)씨 빙모상, 김정수씨 시모상 = 17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30분, 02-3010-2295



## 한화생명, 찾아가는 라이프플러스 카페 운영

한화생명은 17일부터 찾아가는 라이프플러스 카페를 운영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찾아가는 라이프플러스 카페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카페로 전국 56개 지역단과 7개 직장단체를 찾아가는다. 오는 3월 8일까지 본사 전 팀장 및 임직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도우미들이 따뜻한 음료를 직접 만들어 나눠준다.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부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영업총괄 구도교 전무(왼쪽에서 두 번째), 임직원들이 음료를 준비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 신한금융투자, 따뜻한 사랑의 연탄 봉사활동

신한금융투자는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관악구 밤골지역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의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신한금융투자 올해 입사 예정인 신입사원을 비롯한 약 50여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후원받는 가구는 서울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내 관할 가정으로 총 3000장의 연탄을 배달받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투자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





빠른 스피드... 화려한 묘기

# 설원에서 펼치는 서커스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10 스노보드

스피드 '알파인'·기술 '프리스타일'  
5가지 세부종목, 금메달 10개 경합

'눈 위의 서핑'으로 불리는 스노보드는 빠른 스피드에 화려한 묘기가 접목된 동계 익스트림 스포츠의 대표 주자다.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스노보드는 더 역동적인 스포츠를 원했던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다. 스노보드가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1998년 나가노 대회부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스노보드 부문에는 10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하프파이프, 평행대회전, 빅에어, 슬로프스타일, 크로스 등 5개 세부 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수들은 10개 금메달을 두고 경합을 벌인다.

스노보드는 스피드를 겨루는 알파인(평행대회전·크로스)과 화려한 기술로 순위가 결정되는 프리스타일(하프파이프·슬로프스타일·빅에어)로 나눌 수 있다.

평행대회전은 선수 두 명이 동시에 출발한다. 평행하게 설치된 레드·블루 기문을 통과해 결승선에 먼저 들어오는 선수가 승리한다. 크로스는 4~6명씩 짜인 조에서 뱅크, 롤러, 스라인, 점프 등 다양한 지형지물 속 코스를 달려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상위 2, 3명을 선발한다.

하프파이프는 반으로 자른듯한 원통형 슬로프에서 경기를 펼치며, 점프와 공중회전 등 고난도 기술로 순위를 가린다.

채점은 5명의 심판이 한다. 심판들은 기본동작, 회전, 기술난이도, 착지, 테크닉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매겨 합산한다.

'설원의 서커스'로 불리는 빅에어는 평창 올림픽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종목이다. 빅에어는 높이 30m, 길이 100m 정도의 점프대로 도약해 플립, 회전 등의 공중 묘기로 예술성을 평가받는다.

레이, 테이블, 박스, 윙 등 다양한 기물과 점프대로 구성된 코스에서 높이, 회전, 테크닉, 난이도를 채점하는 종목이다.

한국 대표로는 이상호(33) 선수가 사상 첫 설상 종목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이상호는 지난해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회전과 대회전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며 2관왕에 오른 바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대선후보 암살 용의자'로 설 극장가 접수?

# 열일하는 강동원의 특별한 도주

〈열심히 일〉

### 영화 '골든슬럼버' 제작발표회

7년전 원작보고 먼저 영화 제안  
음모에 휘말린 평범한 시민역할  
한국의 현재 상황과 정서 녹여

영화 '1987'의 히든카드로 열연을 펼친 강동원이 '골든슬럼버'에서 대통령 후보 암살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관객을 만난다. '검사와전' '마스터' '1987' 등 매 작품 장르와 캐릭터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구가 해온 강동원이 설날 또 한번의 변신을 거듭한다.

17일 오전 CGV압구정에서는 영화 '골든슬럼버'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노동석 감독을 비롯해 배우 강동원, 김성균, 김의성, 김대명이 참석했다.

영화 '골든슬럼버'는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통령 후보 암살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 남자의 도주극을 그린 작품. 강동원의 차기작이자 김의성, 한효주, 김성균, 김대명까지 골든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날 강동원은 "마스터"에서 형사를 연기할 때는 이번 작품만큼 많이 뛰지 않았다. 확실히 쫓기는 입장이 많이 뛰는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강동원은 모범시민에서 하루아침에 대통령 후보 암살 용의자가 된 건우 역을 맡았다. 그는 "극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주인공이다. 관객분들이 최대한 건우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전했다.

7년 전부터 '골든슬럼버' 기획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사카 코타로 작가의 소설을 접하



영화 '골든슬럼버' 제작발표회 / 손진영 기자

고,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면 재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가치가 있었고요."

노 감독 역시 "음모에 휘말린 주인공이 특별한 사람(히어로)이 아니다.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 점이 우리 영화의 장점이다. '누구나 저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겠구나' 건우가 도주중에 느끼는 감정들을 관객도 느낄 수 있게 연출에 중점을 뒀다"고 제작의도를 밝혔다. 이어 "원작이 갖고 있는 '소시민이 겪을 수 있는 두려움', '언제나 내 편이 돼주는 친구들'이라는 점은 살리되, 한국의 현상황과 정서를 녹였다"고 원작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영화는 비틀즈의 명곡 '골든슬럼버'의 감성적 선율과 긴박한 암살 사건, 상반된 두 이미지의 충돌로 도입부부터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여기에故 신해철의 '그대에게' '힘을내'를 OST

로 삽입해 영화가 갖고 있는 정서를 극대화한다.

강동원은 "골든슬럼버"는 폴 매카트니가 비틀즈 멤버들에 대한 사랑을 담아 만든 곡으로 알려졌다. 주인공 건우와 친구들이 어린 시절 함께 들던 곡이라는 영화적 설정이 있는데 원곡이 갖고 있는 의미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고 만족도를 드러냈다.

"원작이 있는 영화에 출연한다고 부담이 됐던 건 아니에요. 소설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잘 전달해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죠. '골든슬럼버'는 극장을 나가실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한번쯤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극 중 건우를 믿는 고등학교 친구들(김대명, 김성균, 한효주)과 건우의 조력자(김의성)의 활약도 기대감을 높인다.

실제로 동갑내기인 강동원, 김대명, 김성균은 촬영장에서서도 환상의 호흡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원은 '늑대의 유혹' 이후 동갑내기 배우와 촬영은 오랜만이였다고 미소지었다.

'골든슬럼버'는 국가 조직에 의해 계획된 대통령 후보 암살사건이라는 극적 사건을 토대로 하지만, 영화의 한 축에는 보통의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 등 우리 주변에 존재할법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캐릭터들을 그림으로써 영화적 재미와 현실적 공감대의 균형을 맞춘다.

필요에 따라 누군가를 영웅으로, 혹은 암살범으로 만들 수 있는 권력에 맞서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그 안에 감성과 온기가 공존하는 특별한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것이다.

2월 14일 개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왼쪽부터)김의성, 강동원, 노동석 감독, 김대명, 김성균. 영화 '골든슬럼버' 제작발표회.

손진영 기자 son@

## 메트로신문이 직접 편집한 경제뉴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메트로신문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뉴스스탠드

오늘의 날씨

1월 18일  
음력 : 12월 2일

수도권 날씨  
0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3/5, 동두천 -2/6, 가평 -3/5, 파주 -4/4, 서울 0/5, 양평 -1/6, 인천 0/3, 수원 -1/5, 용인 -1/5, 평택 -2/6, 백령도 0/3

해돋이 / 07:45 | 해질 / 17:4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스포츠 한줄 News

- ▲ 올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삼일절인 3월 1일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의 맞대결로 9개월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월드컵 본선이 열리는 기간에는 51일간 중단된다.
- ▲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018시즌 선수단 연봉 협상을 마쳤다. 고과 1위 포수 유강남이 지난해 1억원보다 8500만원 오른 1억8500만원에 계약하며 팀 내 주요 선수 중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으며 양석환, 임찬규 등은 역대 연봉에 진입했다.
- ▲ 손흥민(토트넘)이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가 발표한 스카이스포츠 파워랭킹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2위에 올랐다. 1위에는 팀 동료 해리 케인이 올랐다.
- ▲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2부 투어인 웨트컴 투어 대회에서 우승했다.
- ▲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광주FC가 성남FC에서 뛰던 베테랑 수비수 김태윤을 영입했다.
- ▲ 프로축구 울산 현대에 우선 지명된 수비수 김현우와 미드필더 김규형이 크로아티아 디나모 자그레브로 임대 이적했다.
- ▲ 한국OB축구회는 제12대 회장으로 최길수 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을 선출했다.
-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쇼트트랙 대표팀 박윤기(고양시청)가 브리온컴퍼니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 취업 힘들어 학생 신분 유지 대학생 10명중 3명 ‘졸업유예’

대학별 비용 차이 등 부작용 우려  
졸업까지 평균 시간 5.4년 걸려  
취업에 성공한 졸업자는 20.4%

오는 2월 대학 졸업 대상자 10명 중 약 3명이 졸업을 미루는 ‘졸업 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이 어렵자 대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취업 준비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적지않은 대학생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만큼 대학마다 규정이 다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졸업유예제 운영현황 전수 조사 자료(2017년 2월 기준)’에 따르면, 197개 대학 중 130개 대학이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예생은 1만5898명, 이들이 낸 등록금은 33억7천만원에 이른다.

졸업 유예는 이수 학점 등 대학의 졸업 요건을 다 채워 졸업이 가능하지만, 졸업하지 않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도

대학생 졸업까지 5.4년 걸린다



록 하는 제도로 대학별 자율로 운영되다 보니 등록비용의 차이가 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학별로 법률적 근거가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운영기준이 제각기 달라 대학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대학별로 최소 수강학점 기준을 두고 수십만원의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최소 이수학점 기준이나 등록금 없이 이름뿐인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 등 형평성 등 논란이 제기된다.

대학별 졸업유예제도를 보면, 서강대는 최소 수강학점이 1학점 이상이고, 졸업유예를 하려면 69만3600원을 내야 하지만, 같은 최소 수강학점을 적용하는 서울과기대와 명지대의 등록 비용은 각각 11만8270원과 56만2천원이 든다. 또 단국대는 최소수강학점이 없지만, 18만6500원을 내야 졸업 연기가 가능하고 동국대는 제도를 시행하지만 최소 수강학점이나 등록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면서 대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2월 졸업 대상자 58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72.4%(422명)만 졸업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나머지 27.6%는 졸업 유예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자는 20.4%에 그쳤다.

졸업하는 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4년이 걸렸다. 성별로 여자 대학생의 경우 평균 4.8년 인 반면, 남자 대학생은 평균 6.2년이 소

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4년 길었다.

대학생들은 특히 앞으로 졸업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졸업시기가 늦춰질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자 43.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은 34.5%, ‘잘 모르겠다’는 22.1%로 집계됐다.

졸업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복수응답) ▲취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라는 답변이 66.8%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취업을 위해 쌓아야 할 직무역량 경험 등이 많아져서(53.0%)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등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서(12.6%) 등이 있었다.

반면, 졸업시기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에는(복수응답),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시 나이제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65.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졸업유예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45.8%) 등의 답변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자녀세대보다 부모세대”... 고용시장 ‘고령화’ 본격화

20대 50대 고용률 격차 ‘17.6%’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고용률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고용시장의 고령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람인이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2017년 연간고용동향 발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20대와 50대 고용률 격차가 17.6%포인트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세대별 취업자 및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

는 2016년 고용률 58.3%에서 2017년 57.8%로 0.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50대 고용률은 2016년 74.4%에서 지난해 75.4%로 1%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고용률이 79.4%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50대’(75.4%), ‘30대’(75.3%), ‘20대’(57.8%), ‘60대이상’(39.9%) 등의 순이었다.

2017년 12월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50대(50-59세)는 75.5%로, 자녀 세대인 20대(20-29세) 고용률

57.1%보다 18.4%포인트 높았다. 전년 동월(2016년 12월)과 비교해도 ‘50대’와 ‘30대’는 고용률이 각각 1%포인트, 0.8%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0.8%포인트 감소해 청년층 인구수 감소 및 심화되는 구직난에 따른 고용 절벽이 뚜렷하게 보이는 추세였다.

성별 고용률을 보면, 남성이 71%로 여성 50.7%보다 20.3%포인트 높았다. 남성의 경우 ‘40대’(92.1%), ‘30대’

(90.4%), ‘50대’(87.8%), ‘20대’(55.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사회초년생인 20대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50대 부모 세대와의 격차가 31.9%포인트 컸다.

여성 고용률 역시 ‘40대’가 66.3%로 가장 높았다. ‘50대’(64.2%), ‘20대’(63.6%)가 그 뒤를 이었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62.3%로 가장 낮아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용수 기자



미세먼지 비상조치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7일 오후 서울 올림픽대로 전 광관에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 건국대-KU융합과학기술원 미생물 속 효소 이용 ‘당뇨병 치료제’ 찾아

건국대학교는 KU융합과학기술원 오덕근 교수 연구팀이 미생물에 존재하는 효소를 이용해 인체 내 존재하는 지질 조절제와 유사한 물질들을 개발해 당뇨병 치료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1월 9일자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부작용이 적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 천연 물질의 발굴에 주목했고 일부 미생물로부터 인간 유래 지질조절제인 헵톡실린, 트리오실린 등의 물질들을 합성해냈다.

지질 조절제란 면역 항염증 포도당대사조절 지방대사조절 등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에 관여하는 물질로, 헵톡실린은 인슐린 분비촉진, 칼슘의 수송 등의 생리활성을 돕는 물질이다. 트리오실린은 헵톡실린이 가수분해효소에 의해 전환되는 3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물질이다.

오덕근 교수는 “향후 당뇨병 치료, 염증치료, 감염치료 등의 기능이 있는 다양한 지질 조절제를 생합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서울지역 전문대 정시 경쟁률 ‘10.9대1’

서울지역 9개 전문대학의 2018학년도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10.9대 1로 나타났다. 2017학년도 10.4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17일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서울권 전문대 중 삼육보건대 경쟁률이 19.7대 1로 가장 높았다. 동양미래대 경쟁률은 7.1대 1로 가장 낮았다.

대학별 경쟁률을 보면, 명지전문대 13.1대 1, 인덕대 11.6대 1, 배화여대 10.9대 1, 서일대 10.7대 1, 한양여대 9.9대 1, 송의여대 8.7대 1 등으로 마감됐다.

서울여자간호대가 전년 12.6대 1에서 올해 16.7대 1로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상

승률을 기록했다.

취업난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업에서 유리한 전문대 지원자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취업에 유리한 간호, 보건, 유아교육, 식품영양 등 실용적인 분야 경쟁률이 높았다. 또 미디어산업 성장에 따라 방송, 연기, 실용음악 분야 지원자도 지속 늘고 있다.

학과별 경쟁률을 보면, 실용음악과 경쟁률이 가장 높다.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가창전공)는 무려 135대 1을 기록했고, 한양여대 실용음악과(가창전공)도 10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권 전문대 경쟁률〉

학교명	2017년	2018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2.6	16.7
인덕대학교	9.4	11.6
서일대학교	9.1	10.7
삼육보건대학교	18.7	19.7
한양여자대학교	8.9	9.9
배화여자대학교	10.3	10.9
송의여자대학교	8.9	8.7
동양미래대학교	7.8	7.1
명지전문대학	14.9	13.1
소계	10.4	10.9

이밖에 방송연예과, 연극영화학과, 연극영상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식품영양학과 등도 평균 경쟁률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용수 기자





[뉴스] "JY 외 후계자 누가있나" '승계'는 특검의 허구 04



[가상화폐] '돈세탁·비과세' 구멍 송송 편법 창구로 06



# 빗물 저장고 우수지의 '변신'... 역사발 걸으며 생태 체험

## 지하철은 문화를 싣고

76 8호선 강동구청역 - 성내유수지 생태공원

악취 등 오염 심했던 도심 저수지 주민친화적 생태공원으로 탈바꿈

체육시설 완비·훌륭한 자연경관 몽촌역사관서 체험·역사공부도

8호선 강동구청역 3번 출구로 나와 10분정도 걸으면 '성내유수지 생태공원'이 있다. 우수지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저수지지만, 악취나 해충 등으로 오랜 기간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우수지가 아파트 내 배수 시설이 완비되면서 점차 주민친화적인 생활체육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내유수지 생태공원인 것이다.

성내유수지 생태공원은 국제축구연맹 규격의 인조 잔디 축구장을 비롯해 다목적 운동장과 게이트볼장 등 주민체육시설이 완비돼 있다. 체육시설을 이용한 뒤 씻을 수 있는 샤워장도 마련돼 있어 학교 축구부와 축구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내유수지 생태공원의 대표 자랑거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다. 이 공원은 습지생물종이 잘 자라는 우수지 특성을 활용해 여러 습지 식물 종을 보존하고 있다. 현재는 낙우송 등 9종 2042그루의 나무와 참억새, 가는 억새 등 23종 17만2400본의 습지성 초화류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생태공원을 둘러싼 역사발은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역사발은 가을에 방문객이 가장 많은데, 기자가 이곳을 방문한 한겨울에도 카메라를 들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성내유수지 생태공원에서 나와 이어지는 산책로를 걷다보면 88올림픽 공원 내에 위치한 몽촌토성에 다다른다. 몽촌토성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몽촌역사관은 겨울방학 자녀들을 데리고 방문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백제문화의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체험학습에 도움이 된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 6차례의 정밀조사를 거쳐 발굴된 몽촌토성의 유물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몽촌역사관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인기다. 몽촌토성의 발굴 당시를 재현하며, 아이들에게 발굴조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에도 아이들은 견학을 와서 체험을 하고 부모님은 대기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몽촌토성에 관한 영상을 보고 있었다.

몽촌역사관을 나와 성내천을 따라 걷다보면 몽촌토성 어울길로 길이 이어진다. 몽촌토성은 '곰말다리'라고 불리는데, '곰말'은 우리말로 곰마을이고, 한자로 표현하면 몽촌이다. '곰마을'이라는 이름처럼 몽촌토성 산책로를 걷자 도심 속에 익숙하게 들리던 자동차소리는 멀어지고 새소리가 들려온다.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자연을 느낄 수 있어 뻥한 영화관 데이트에 지친 연인들이 많이 찾는다.

몽촌토성은 과거와 달리 주변 지형이 바뀐 탓에 평지성처럼 보이지만 남한산의 산줄기와 한강변의 자연지형을 그

대로 이용해 만든 백제의 왕성이다. 실제로 이 토성은 진흙을 쌓아 성벽을 만들고 북쪽으로는 목책을 세웠다. 그래서 몽촌토성 내로 들어가는 산책로는 다소 가파르다가도 다시 완만해진다. 걷다보면 추운 것도 잊게 되는 산책로다.

몽촌토성 안 구릉지는 완만한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는 익히 잘알려진 장소다. 기자가 찾은 시간에도 토성 산책로와 구릉지에는 사람이 많았다. 사진

을 찍으러 온 커플과 벤치에 앉아 조용히 새들의 소리를 듣는 아주머니,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도심 속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이번 주말 강동구청역으로 나서는 건 어떨까.

/글·사진=나유리 인턴기자 yul115@metroseoul.co.kr

